

2016

Vol.09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코스카리porter

KOSCA + NEWSLETTER



세계도시 부산

전문건설인이 만든다.

부산하나센터 홍일서예감사 지코르 스미

CONTENTS

KOSCA LETTER Vol.9

코스카레터 제9호



2016년 Vol. 09

발행인 회장 김병철
기고/투고 kosca21@kosca.or.kr
편집/발행처 대한신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디자인/제작 OCA (051. 647. 5991)
인쇄 성광정판 (051. 261. 0027)



10

PART 1

- 1. 권두사.....04
 - 정영옥 _ 부산지방조달청장
 - 이서정 _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PART 2

- 2. 협회소식.....06
- 3. SPECIAL_01 - 소통하는 문화공간.....16
- 4.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18
- 5. SPECIAL_02 - 생활 속 유용한 TIP.....23
- 6. 신기술 소개 - 2016년 상반기 신기술 지정 현황...24
- 7. SPECIAL_03 - 이달의 경영어록.....27
- 8. SPECIAL_04 - 건강지킴이.....28



14

PART 3

- 9. 전문건설인의 삶.....30
 - 건삶인 15호 김세원 _ (주)세원이엔지 대표이사
 - 건삶인 16호 강갑균 _ (주)흥림건설 대표이사
- 10. SPECIAL_05 - 부산의 명소.....34
- 11. 건설산업정보 - Part,1.....36
- 12. SPECIAL_06 - 쉬어가는 유머.....38
- 13. 건설산업정보 - Part,2.....40
- 14. SPECIAL_07 -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47
- 15. SPECIAL_08 - 세계의 아름다운 건축물.....48
- 16. 건설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50
- 17. 회원사 질의·응답.....52
- 18. SPECIAL_09 - 그것이 알고 싶다.....54
- 19. SPECIAL_10 - 미래산업을 바꿀 혁신기술.....58
 - 제6편 : 스마트드론

PART 4

- 20. 회원사 현황.....60
- 21.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진단 및 대책.....62
- 22. 건설업자의 책무.....64
- 23. SPECIAL_11 - 업무단신+3/4분기 주요일정...65
- 24. 회원사 참여 마당.....66
- 25. 불공정행위 신고안내.....67

01

권두사
MESSAGE

message

전문건설인들의
자랑스러운 심터
코스카레터 9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정영옥
부산지방조달청장



● 지난 6월 대한전문건설인협회 부산광역시회의 “동행” 행사는 그야말로 훌륭한 행사였습니다. 좋은 날씨 속에서 우리 부산광역시회 전문건설인이 그간 인연을 맺어온 여러 단체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코스카레터를 접할 때마다 느껴졌던 존경하는 김병철 회장님의 리더십과 부산광역시회의 전문건설인들의 단합된 모습,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보듬는 성숙한 건설인의 모습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건설경기가 호황이던 시기를 벗어나면서부터 한 해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지 않은 해가 없었고, 2016년 역시 국내 건설수주는 '15년 대비 10.6% 감소한 123조원 규모입니다. 더구나 부산지역 SOC사업은 그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린 매년 단합된 모습으로 건설현장 곳곳에서 묵묵히 그 난관을 잘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중소 건설인 여러분의 권익 향상과 투명한 건설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하도급 지킴이와 누리장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건축 사업관리 지원을 위해 시설 전문 인력이 없거나 공사수행 경험이 적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기획, 설계관리, 심의대행, 공사관리, 사후관리 등 영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전문 건설 사업 관리 서비스도 수행하면서 건설인 여러분과 함께 건설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경기가 어려운 이때 남부권 신공항 특수는 우리 부산광역시회 전문건설인들에게 단비가 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회 1,700여 회원사의 크고 작은 목소리를 대변하는 코스카레터를 구심점으로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도약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부산전문건설인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특히 교육시설의 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스카레터 9호 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 시설 부분은 교육환경의 기초를 구성하고 있고, 어린 학생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시설의 많은 부분들이 전문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생각해 볼 때 보다 나은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전문건설인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노력들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최근 건설업계는 대외적으로는 세계적인 불황과 내부적으로는 복지예산의 증대 등 여러 가지 정책 결정 과정상의 우선순위 등으로 일면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활발한 활동과 참여를 동반하는 일자리 창출이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노무비 구분지급제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전문건설업체들이 부산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사업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인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거환경이 근간 요소 중의 하나인 듯이,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시설이 중요한 근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시설이 바로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한 노력으로 인하여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시설의 발전이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을 동반하는 관계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나아가 부산 교육시설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지역 전문건설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와 전문건설인 여러분 모두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보다 나은 교육시설과 쾌적한 부산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 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협회 소식

❖ 제회의 및 행사

2016년 건설안전기원제 및 황령산 벚꽃길 조성 20주년 기념비 제막식

부산사회에서는 2002년 아시안게임 부산유치를 기념하기 위해 1996년 3월 부산전문건설인의 성금으로 조성된 금련산과 황령산 벚꽃길(왕복 7km 구간)이 부산시민의 휴식처와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지 2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고자 4월 4일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인근 전망대에 기념비를 설치하고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다.

또한, 이날 제막식 행사 종료 후에는 황령산 정상 봉수대에서 부산광역시 권준안 건설본부장과 관계 기관 및 부산사회 대표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역 1,760여 전문건설인들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2016년 건설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



업종별 운영분과위원장 회의

부산사회에서는 4월 11일과 5월 18일 「업종별 운영분과위원장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여 “아름다운 동행” 행사 개최 준비 협조사항과 참석인원 독려 방안 및 협회 주요 현안 등에 대하여 협의했다.



부산사회 - (주)YTN 상호협력 MOU 체결

부산사회는 회원사 임·직원의 편의와 복지에 도움을 주고자 5월 13일 (11:00/부산사회 사무처) 회장단과 감사, (주)YTN 조준희 사장 및 이동현 미디어사업국장, 손재호 부산취재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YTN 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부산사회 회원사 임·직원은 개설된 복지물(회원사만을 위한 쇼핑몰)에서 국내외 우수 브랜드의 직거래 공급계약에 의해 차별화된 가격을 바탕으로 최저가형 제품구매가 가능하며, 삼성과 LG의 백색가전은 물론 패션·잡화, 영화 티켓과 문화 상품권까지도 인터넷 최저가보다 30%~40% 추가 할인된 금액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주)YTN 복지혜택물 가입절차 및 이용 안내

- ① 협회전용 인증메일 가입사이트(<http://goo.gl/dehHHg>) 접속
- ② 회원가입(이메일 인증 : 본인이 평소 이용하는 이메일 주소 입력)
- ③ 비밀번호 등록(영문, 숫자 포함 8자리 이상)
- ④ 로그인
- ⑤ 복지물 이용



(<http://goo.gl/dehHHg>) 접속 ▶ 회원가입 ▶ 비밀번호 등록



로그인



복지물 이용



운영위원회의

부산사회에서는 5월 23일과 6월 7일 제2차 및 제3차 「운영위원회의」를 잇달아 개최하여 “아름다운 동행” 및 “가덕신공항 유치”를 위한 부산건설인 기원” 행사 관련 추진계획 등을 결정했다. 또한, 2016 건설의 날 포상 후보자 추천(주인)의 건을 의결하고 각종 활동 추진 계획 등 협회 주요 당면현안을 협의했다.

가덕신공항 유치를 위한 부산건설인 기원행사

부산시회(회장 김병철)는 5월 23일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회장 정현태)와 공동으로 부산건설인과 360만 부산시민의 염원인 가덕신공항 유치를 위해 「가덕신공항 유치를 위한 부산건설인 기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양 단체 회장단 및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덕신공항 예정부지에서 개최되었으며, 가덕신공항 유치 기원문 낭독과 구호제창, 희망 풍선 및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 다양한 기원 이벤트도 함께 이루어졌다.

부산건설산업의 양대 축인 두 단체 회장단은 “가덕신공항이 유치될 경우 세계적 항만인 부산신항과 함께 부산이 국제물류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부산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로서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산전문건설인 가족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부산시회는 6월 11일(10:00/부산사직아시아드보조경기장) 부산 지역 1,770여 회원사의 대표 및 임·직원 가족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전문건설인 가족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아름다운 동행 행사에는 서병수 부산시장과 이해동 부산시의회 의장, 이헌승 국회의원 등을 비롯하여 협회 중앙회 신홍균 회장과 시·도회 및 업종별 협의회 회장 등 많은 대·내외 귀빈들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건설문화 창조”, “공유문화 확산”, “건설규제를 물에 던져 새롭게 설계하자!”, “시공참여제도 대체법안 도입” 등 4개의 슬로건을 통해 “새로운 건설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선진통합사회”로 나아감과 동시에 모두가 즐기고 나누는 한마당 잔치를 함께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회원사들이 기증한 스토리가 있는 물품을 경매와 바자회를 통해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지역의 새터민과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법무부 산하 오륜정보산업학교 등에 기부하였다. 이 외에도 축하 쌀 화환을 부산 행복나눔 지역아동센터에 기부하는 등 협회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지역사회에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되어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으로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협회 소식

부산전문건설인 가족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1 지원금 기부

▶ 회원사

(단위 : 원)

연번	회원사	금액
1	(주)에이비엠그린텍 대표이사 김병철	6,000,000
2	(주)공간조경 대표이사 정석봉	2,000,000
3	(주)세원이엔지 대표이사 김세원	2,000,000
4	(주)성덕건설 대표이사 김경식	2,000,000
5	(주)금호지질 대표이사 허성하	300,000
6	무성토건(주) 대표이사 김중한	300,000
7	신우개발 대표 김문곤	300,000
8	(주)원산토건 대표이사 전병우	200,000
9	천지개발(주) 대표이사 임철규	200,000
10	광민건설(주) 대표이사 최형선	100,000
11	민성건설(주) 대표이사 서영철	100,000

2 경매물품 기부

코스카 중앙회 회장 신홍균, 코스카 부산광역시회 회장 김병철, 코스카 광주광역시회 회장 송성홍, 코스카 경기도회 회장 박원준, 전 국회의장 정의화, 국가정보원 부산지부, 사진작가 김복만, 화가 김영대, 고급미술연구회 화가 강주연, 화가 김대연, 화가 김성진, 화가 김수미, 화가 김철윤, 화가 윤병락, 청암 이상록

3 나눔경매 참여 기부

코스카 경기도회 회장 박원준, 영빈건설(주) 대표이사 김재진, 삼지건설(주) 이소영, 태영건설(주) 대표이사 박판용, 유창중건설 대표 김명주, 야후건설(주) 정일조, 코스카 전라남도회 회장 정종오

4 바자회 물품 기부

(주)에이비엠그린텍 대표이사 김병철, (주)거도산업 대표이사 김창욱, 건진개발(주) 대표이사 심수율, 경남종합조경 대표 송유경, (주)공간조경 대표이사 정석봉, 광평건설(주) 대표이사 주한식, (주)금원건설 대표이사 정영균, 다림조경(주) 대표이사 이경훈, (주)다음엔 김경희, 대미건설(주) 대표이사 노진석, (주)명륜건설 대표이사 김명수, (주)비드 대표이사 이종수, 산양건설(주) 대표이사 정진갑, 삼지건설(주) 대표이사 이태원, 새벽건설(주) 대표이사 김정수, 석봉건설(주) 대표이사 한상호, 성광기업 대표 강소연, (주)성덕건설 대표이사 김경식, (주)세화하우징 대표이사 윤태울, 소원건설(주) 최기향, 신흥건설(주) 대표이사 정진철, (주)영남이엔지 대표이사 박무열, 영빈건설(주) 대표이사 김재진, 옥산건설(주) 대표이사 유재봉, (주)우림시티 대표이사 장용길, (주)우성엔지니어링개발 대표이사 최상대, (주)원산토건 대표이사 전병우, (주)원지조경 대표이사 김선락, (주)유영토건 대표이사 최기남, 유창중건설 대표 김명주, (주)제일건설 대표이사 배명희, 중앙건설(주) 대표이사 민환기, 지산특수토건(주) 대표이사 김형경, (주)청산산업 대표이사 강성구, 태영건설(주) 대표이사 박판용, (주)테라 대표이사 김대용, 호성조경(주) 대표이사 안창섭, 태양산업 대표이사 정기상(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장), (주)포스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김복기, 부산전문건설회관 관리소

5 쌀 기부

코스카 중앙회 회장 신홍균, 코스카 서울특별시회 회장 신승섭, 코스카 대구광역시회 회장 도재영, 코스카 인천광역시회 회장 지문철, 코스카 광주광역시회 회장 송성홍, 코스카 대전광역시회 회장 정인수, 코스카 울산광역시회 회장 방무천, 코스카 경기도회 회장 박원준, 코스카 세종시·충청남도회 회장 김택환, 코스카 전라남도회 회장 정종오, 코스카 경북도회 회장 이광오, 코스카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전정배, 코스카 실내건축협의회 회장 김주만, 코스카 지붕판금·건축물조립협의회 회장 박철기, 코스카 상하수도설비협의회 회장 조광일,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조성제, 이일회 회장 양재생,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정현태, 재무창신34기 수협은행 범일동지점장 박영주, (사)중소기업융합 부산연합회 회장 최태환, 동락화학공업사 대표 경영학박사 이길문, (주)밴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최윤찬, (주)삼영합판 대표이사 함명규, 부울경 아카데미 총원우회 강익구 회장 외 원우일동, 신평장림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김광규, 동일산업 대표 강현호, 극동산업 대표 박수섭, U&GSTEEL,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기술사회 부산지회장 안영호, BNK 금융그룹 회장 성세환

❖ 강습회 및 교육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구·군 건축관계자 교육

부산시회는 부산광역시와 합동으로 4월 22일 (14:30/부산광역시의회 2층 중회의실)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 건설행정과 및 16개 구·군청 건축 인·허가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부산광역시 건축관계자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서 부산시회 한종석 사무처장은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건설공사 발주방법 및 계약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부산지역에서 시행·시공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대형공사현장에 부산전문건설업체가 70% 이상 하도급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를 당부했으며,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정책과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 확대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에서 민간공사현장의 지역 업체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 “부산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와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실천과제와 구·군별 실적 평가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5월 말~6월 초 시행예정인 대형건설현장 하도급 실태조사 관련 당부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부산지역 사회복지법인 시설공사 발주담당자 교육

부산시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와 공동으로 5월 20일(13:30/부산광역시 1층 대강당) 「부산지역 사회복지법인 시설공사 발주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평소 복지관에서 개·보수 공사 등 건설공사 발주 시 업종선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협회에서 집체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 부산광역시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부산 지역 아동·여성·노인복지관 등의 시설공사 발주담당자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 부산광역시와 부산시회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과 건설업자 선정기준 및 소규모 복합공사 등 건설 관련 제도에 관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건설공사 발주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시회에서 제작한 책자도 함께 배부했다.



건설업무관계자 민·관 합동 워크숍

부산시회는 부산광역시와 합동으로 5월 26일(14:00/그린나래호텔 2층 그랜드볼룸) 부산광역시 조승호 도시계획실장 등 부산지역 20여 개 발주기관의 계약·감독·건설행정 담당 공무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업무 관계자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병철 회장은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부산전문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주지원과 업역보호,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등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조승호 도시계획실장은 “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부산전문건설업체 수주지원 등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부산시회 한종석 사무처장은 2015년 전문공사 실적신고 분석현황과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소규모 복합공사 전문공사 발주방법, 우수 발주사례 등을 소개하고, 공공·민간공사에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 회원사 수주지원 및 확대를 위한 간담회 활동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간담회

부산시회는 5월 9일 부산광역시 서병수 시장 및 조승호 도시계획실장, 이순학 창조도시국장, 송삼중 서부산개발국장, 권준안 건설본부장 등 건설관계관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부산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시회 김병철 회장은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등 부산에서 시행되는 대형건설 공사현장에 보다 많은 부산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실 시공자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정착과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 확대, 건설공사 설계 시 품의 현실화(품의 할증 적용)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서병수 시장은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가덕신공항 등 다양한 기반시설 구축과 건설업계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협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부산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회의원 간담회

부산시회는 5월 13일 하태경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업계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병철 회장은 “시공참여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조속한 법제화와 수의계약 공고 시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된 경우 자치구 또는 군 소재 업체만을 대상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없게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하태경 국회의원은 “시공참여자 대체 제도 도입, 광역단위 수의계약 참가 자격 구·군 제한 금지 등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방안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회의원 방문



이헌승 국회의원 방문



성세환 회장 방문

이헌승 국회의원 및 BNK금융그룹 성세환 회장 방문

부산시회 회장단은 5월 24일 BNK 금융그룹 성세환 회장과 5월 27일 이헌승 국회의원을 각각 만나 전문건설업계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부산시회에서 협회 창립 31주년을 기념하는 아름다운 동행 행사에 대한 초청과 협조를 요청했다.

회원 소식

2016년 제1차 부산전문건설인 단합산행

부산시회는 4월 15일 회원사 대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사의 단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부산전문건설인 단합산행」을 실시했다.

이번 산행은 남해바다의 이름난 명산으로 손꼽히는 사랑도 옥녀봉으로 다녀왔다. 대항해수욕장에서 출발하여 불모산을 거쳐 옥녀봉까지 오르는 코스로 참여 회원사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우의를 다지며, 협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2016 건설의 날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 안내

6월 17일 개최된 「2016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부산시회 제10대 부회장이자 강구조물공사업 분과위원장이인 (주)세원이엔지 김세원 대표이사와 부산시회 제10대 대표회원인 (주)흥림건설 강감군 대표이사가 건설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건설인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공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주)세원이엔지
김세원 대표이사

(주)흥림건설
강감군 대표이사

Healing Movie



1관 굿바이 싱글

개봉 | 2016년 6월 29일
 감독 | 김태곤
 출연 | 김혜수, 마동석, 김용건, 김현수, 박시양, 서현진, 전석호

대한민국 대표 독거스타의 임신 스캔들! 이번엔 제대로 사고 쳤다!

영화 <굿바이 싱글>은 싱글족 트렌드를 가장 유쾌하고 발랄하게, 무엇보다 코믹하게 표현하고자 톱스타 독거 싱글 '주연' (김혜수)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배우 중 하나인 '주연'은 실로 화려한 싱글 생활을 영위 중이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그녀를 보는 시선과는 정반대로, '주연'은 어느 날 자신에게 남은 것이 험찬으로 가득 채워진 '내 것' 하나 없는 현실임을 깨닫는다. 호텔처럼 고급스러운 것들로 채워진 커다란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드는 그녀의 모습. 과연 주연은 정말 행복할까? 그래도 '주연' 에겐 오롯이 자신만을 사랑해 줄 '내 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영화 <굿바이 싱글>은 싱글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저 말랑말랑한 톤으로 보여주는 최근의 TV 프로그램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간다. 영원히 당당할 것만 같은 싱글들의 궁극적인 고민을 '끝까지' 밀고 나아가 도달한 곳은 예측 불허의 포복절도 코미디. 어쩌면 뻔할 수도 있는 임신 스캔들이라는 주제가 '주연'이라는 희대의 캐릭터를 만나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야기로 탄생한다.

2관 부산행

개봉 | 2016년 7월 20일
 감독 | 연상호
 출연 | 공유, 정유미, 마동석, 최우식, 안소희, 김의성, 김수안

“끝까지 살아남아라” 전대미문 재난 블록버스터

대한민국 재난 영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블록버스터가 드디어 탄생했다. 제작 단계 서부터 화제를 모았던 전대미문의 블록버스터 <부산행>은 그간 국내에서 선보였던 재난 영화와는 전혀 다른 비주얼과 탄탄한 스토리로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할 예정이다. 전대미문의 재난이 대한민국을 뒤덮은 가운데, 서울역을 출발한 부산행 KTX에 몸을 실은 사람들의 생존을 건 치열한 사투를 그린 재난 블록버스터 프로젝트 <부산행>.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서 진행되는 스토리는 국내 관객들에게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스릴과 쾌감을 선사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퍼지는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는 KTX처럼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보는 이들에게 긴박감과 짜릿함을 전달한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감정과 이기심, 사회적 갈등,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지키기 위한 각 캐릭터의 사투는 관객들이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만든다.



healing camp



01 무안 연꽃축제

2016.08.12 ~ 2016.08.15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백련로 339-2, 화산 백련지 일원

무안군이 주최하는 '무안연꽃축제'는 남도의 대표적인 여름축제로서, 단일 연꽃축제로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10만 평을 가득 채운 초록빛 연잎 사이로 고결함을 드러내듯 울곧이 하얀 꽃망울을 틔우는 백련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 자라는 백련은 흥련처럼 일시에 피지 않고 7월부터 9월까지 수줍어 잎사귀 아래 보일 듯 말 듯 숨어서 핀다. 또한, 최근 멸종 위기 식물로 알려진 가시연꽃 집단자생지로도 알려졌다. 백련지 안에는 30여 종의 연꽃과 50여 종의 수생식물이 자생하고 있고, 자연학습장과 수생식물생태관이 있다.



02 물 맑은 양평 메기수염축제

2016.05.29 ~ 2016.08.31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곱다니길 55, 수미마을 일원

'수미마을 365일 축제조직위원회'가 '신나는 여름캠ป์, 물 맑은 양평메기수염축제'로 콘셉트를 잡고 신나는 여름축제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은 홈페이지(summerfestival.kr)에서 자유이용권을 예약한 후에 수미마을을 찾으면 된다. 프로그램은 맨손 미꾸라지 사냥, 독살 체험 물고기 사냥, 황토&모래와 놀기, 뗏목체험, 물싸움 놀이, 수륙양용마차 등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나는 물놀이로 구성됐다. 물고기를 잡은 사람은 집으로 가져가거나, 요리 코너에서 직접 요리해서 맛볼 수도 있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시식용 어죽이 제공된다.

03 제19회 보령 머드축제

2016.07.15 ~ 2016.07.24

충청남도 보령시 머드로 123, 대천해수욕장 일원

보령은 충청남도 서남부에 위치한 해안지역으로, 136km에 이르는 기다란 해안선을 따라 고운 바다 진흙이 펼쳐져 있다. 축제가 열리는 대천해수욕장은 폭 100m, 길이 3.5km의 패각형 해수욕장으로, 수온이 적절하고 경사가 완만하여 서해안 최고의 여름 휴양지로 꼽힌다. 보령 머드는 원적외선이 다량 방출되고 미네랄이나 게르마늄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미용 효과에 뛰어나며, 이스라엘의 사해 진흙보다 품질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령머드축제를 찾아 일상의 시름을 잊고, 해변의 낭만과 흥겨운 열정을 마음껏 충전해보자.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품의 할증 반영 건의

상·하수도 공사 현장 여건 반영 절실

부산시회는 4월 5일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부산광역시 감사관실, 부산지역 엔지니어링 업체 등에 건설공사 설계 시 현장 여건을 고려한 품의 할증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상·하수도공사의 성격상 도심지, 주택 밀집지역 공사, 민원 해소를 위한 야간작업 등 긴급 누수 복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공사의 지세별, 지형별 현장여건 등에 따른 품의 할증이 반영되지 않아 적자시공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상·하수도공사 설계 시 1일 시공량(8시간) 미만의 소규모 공사 및 1일 미만의 건설기계 임대の場合에도 별도 품에 대한 계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업체들은 적정공사비 미확보로 채산성이 악화되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공사시공 품질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시회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시회는 건설공사 설계 시 일률적인 예산절감에 맞춰 설계하기보다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지세별, 지형별 또는 해당 공종별 작업현장 여건(주택지, 야간, 긴급복구 등)이 반영된 품으로 설계하여 줄 것과 1일 시공량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인건비, 장비임대료 등은 1일(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건설현장의 현실이므로 건설공사 설계 시 1일을 기준으로 품을 계상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 2016년 부산지역 우수 전문건설업체 추천

부산시회는 4월 11일 부산광역시에 우수한 시공능력을 갖춘 부산전문건설업체 526개사에 대해 중앙1군 대형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추천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부산광역시에서는 중앙1군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해당 업체들에 대한 추천서를 배부하고 협력업체 등록을 적극 권장했다.

업종별 우수전문건설업체 추천현황

(기준일자 : 2016.03.31.)

업종	업체 수	추천 업체 수	업종	업체 수	추천 업체 수
실내건축공사업	334	67	철도·궤도공사업	1	1
토공사업	263	53	포장공사업	107	22
미장·방수·조적공사업	135	27	수중공사업	49	10
석공사업	51	11	조경식재공사업	179	36
도장공사업	113	23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114	23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153	31	강구조물공사업	35	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260	52	철강재설치공사업	3	1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39	8	준설공사업	8	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84	77	승강기설치공사업	50	10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58	52			
보링·그라우팅공사업	63	13	합 계	2,599	526

※ 추천기준 : 부산시회 소속 회원으로서 2015년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20% 이내 업체(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중인 자와 당좌거래 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조달사업법률 및 전자조달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부산시회는 4월 20일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개정의견을 중앙회를 경유하여 조달청에 제출했다. 개정의견 주요 내용으로는 하도급업체의 하도급 공사대금 확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종합건설업체에서는 이를 교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하도급관리의 전자적 처리 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에 관한 사항도 관리토록 하여 보증서 미교부 등 불법행위가 사전 차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의한 것이다.

❖ 건설업 무등록 근절 추진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청 등에 협조 요청

부산시회에서는 4월 11일 건설부조리 근절의 일환으로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한 광고를 게재한 후 실내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방수, 도장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공하는 부산지역 300여 개 건설업 무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건설업 무등록 시공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므로 전문건설업을 등록 후 시공하여 줄 것을 안내했다.**

또한, 4월 21일 부산지역 150세대 이상 660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지부 및 각 구·군지회, 의료·미용 관련 단체, 부산지역 주요 대학교에도 동 내용을 안내하여 실내 인테리어 공사, 방수공사, 도장공사 등을 시공할 경우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업체에게 시공케 함으로써 건전한 건설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시회는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청 공보계 및 편집실 등에도 건설업 무등록 시공 근절 홍보문을 각 시·구(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부산시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소규모 복합공사 해당 전문공사 발주 건의

부산사회는 5월 18일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교육지원청, 공사·공단 등에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 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업종별 업무내용을 반드시 준수해 해당 전문건설업종으로 발주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발주자에게 공사의 종류 및 특성에 맞는 시공자 선택권을 부여하고, 도급 단계 축소(2단계→1단계)로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어 공사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당초 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 해당 전문건설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에게 발주(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할 수 있도록 2015년 11월 2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으로 써 주된 전문공사가 전체 공사금액의 2분의 1 이상일 경우 나머지 전문공종은 부대공사로 보아 주된 전문공종의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 받아 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시설물의 보수·보강·개량공사를 특허·신기술 반영, 단순히 2종 이상의 전문공사 복합, 기존의 발주관행 등을 이유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만 발주하고 있다.

이에 부산사회는 일부 발주기관에서 설계에 반영된 특허·신기술은 하나의 특화된 시공방법으로써 건설공사 낙찰자가 특허·신기술 보유자와 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므로 시공업종을 선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최초 시공과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각 공종에 상응하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였으나 하자보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몰아주기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 시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의 업종별 업무영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이의 시정을 건의한 것이다.



❖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확대 건의

부산시회가 최근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부 자치 구·군에서는 시비배정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1건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지 않는 발주기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 실태조사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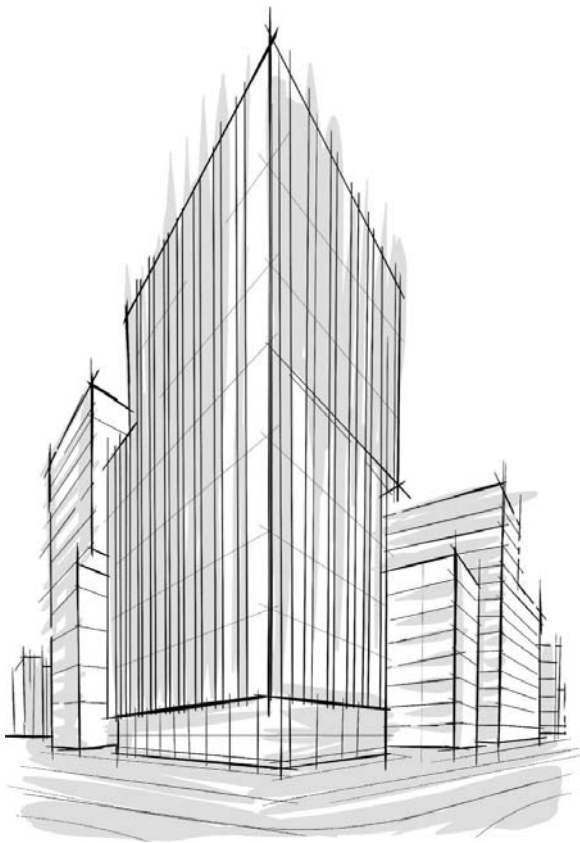
1.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정 기간에 따르지 않고 있다(58개사, 응답률 : 29.4%)
 - 법정 기간 대비 1.3배로 부당하게 요구
2. 하자기간 내 하도급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임에도 무리한 하자담보 요구 (68개사, 응답률 : 38.4%)
3. 원도급자의 요구에 의해 불공정계약조항(부당특약 등)을 설정(42개사, 응답률 : 24%)
 - 서면(계약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을 요구하고 비용 전가(10개사, 응답률 : 20.4%)
 - 민원처리 및 산업재해 등 비용 전가(17개사, 응답률 : 34.7%)
 - 입찰내역(산출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고 비용 전가(17개사, 응답률 : 34.7%)
- ※복수응답
4.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한 경우(31개사, 응답률 : 17.6%)
5. 하도급업체의 의사와 달리 공사대금을 대물 지급(29개사, 응답률 : 16.1%)
 - 부동산 건물(36개사, 응답률 : 94.7%)
6. 원도급사가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증액받지 못함(72개사, 응답률 : 49.4%)
7. 하도급대금 어음 지급 시 어음할인료를 지급받지 못함(94개사, 응답률 : 69.6%)
8.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받지 못함(67개사, 응답률 : 49.6%)

이에 5월 18일 부산지역 44개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으로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실 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로 공사목적물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예방,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부산지역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 노면표시공사 입찰참가자격 부당 제한 건의 결과

최근 우리 협회에서는 계약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규정과 다르게 노면표시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장비를 보유(임대 포함)한 업체로 부당하게 제한한 사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과 제한을 해소하여 줄 것을 적극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로부터 **“계약담당자가 금지해야 할 내용으로 건설기계 또는 장비의 보유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보한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따라서 부산시회는 5월 24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입찰참가자격에 장비를 보유한 업체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협회로 통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확대 반대 부산사회,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반대 건의

부산사회는 6월 2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면제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등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보증서 교부 면제 확대를 반대하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중앙회 경유)에 건의했다.

개정(안)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발주하여 공사를 이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를 면제하도록 단서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사회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은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개정(안)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회피하기 위해 악용될 수 있고,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원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보증할 방법이 없어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면제 확대에 대해 반대 의견을 건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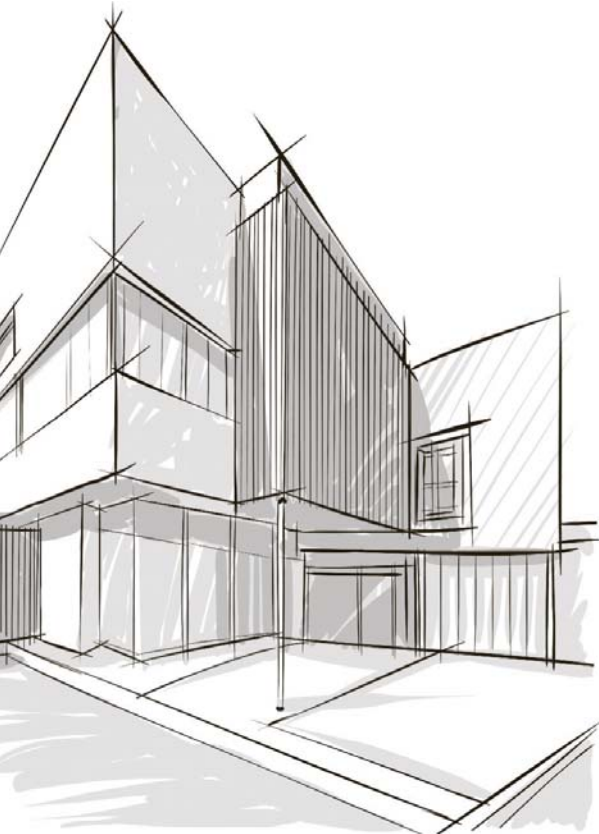
❖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간담회 건의사항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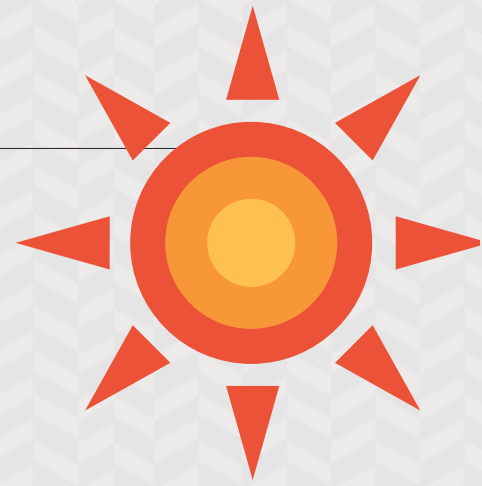
부산사회는 6월 2일 전문공사로 발주 예정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실행이 이하로 도급받는 사례 근절을 위해 설계 시 1일 시공량 미만인 경우에도 건설현장에서는 인건비, 장비임대료 등을 1일(8시간) 기준으로 지급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1일 기준 품의 계상하고, 지세별, 지형별 또는 해당 공종별 작업현장 여건이 반영된 품의 할증을 반영해 줄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중앙회 경유)에 건의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1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총 시공량이 1일 시공량 미만의 소규모 공사일 경우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품을 계상토록 하고 있다. 건설공사 설계 시에는 공사규모, 지세별·지형별 공사 현장조건 등을 고려하여 품의 할증을 적용하고, 품셈 각 항목별 할증이 명시된 경우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심지, 주택 밀집지역 공사, 민원해소를 위한 야간작업 등 공사의 지세별·지형별 현장여건 등에 따른 품의 할증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1일 시공량 미만의 소규모 공사 및 1일 미만의 건설기계 임대인 경우에도 별도 품에 대한 계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적자시공을 면치 못해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종합공사와 달리 단일 전문공사의 경우 품의 할증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없어 원활한 공사 진행에 많은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위험 또한 크게 증가된다.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세상입니다. 사소한 작은 정보도 나중에는 유용하게 쓰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번 알아두면 두고두고 도움 되는 생활 속 팁을 알려드립니다. 꼭 기억해두시고 필요할 때 요긴하게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알 아 두 면 유 용 한 생 활 속 T I P

여름철 에너지 절약법 더운 날씨도 무섭지만, 전기세 탓에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여름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나도 모르게 낭비되던 전기를 잡아생활 속 지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01 텔레비전 02

여름철 냉장고의 온도는 5~6℃가 적당하므로 설정된 수치를 확인해보세요. 냉장고 문을 6초간 열었을 경우에 다시 온도를 낮추는 데는 30분이 소요되므로, 문을 열기 전에 어떤 음식을 꺼내야 할지 미리 생각해보는 게 좋습니다. 음식물을 보관할 때도 냉장실 전체 공간의 70%를 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너무 꽉 찬 냉장고는 냉기 순환이 잘되지 않아 전력을 더욱 많이 소모합니다. 냉장고 뒤편의 방열판을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효율을 5% 올릴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는 여름철에는 자연스럽게 텔레비전을 켜두는 날도 많습니다. 텔레비전으로 낭비되는 전력을 줄이려면 플러그를 부지런히 뽑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텔레비전을 꺼도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 대기전력이 흘러 소용이 없습니다.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셋톱박스의 플러그까지 같이 뽑도록 합니다. 평소에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도 볼륨을 20% 높일수록 0.8kW의 전력이 더 소비되므로 볼륨을 줄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에어컨 03 세탁기 04

에어컨을 구입할 때 1등급을 선택하고,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냉방 중에는 창과 문을 여닫는 횟수를 줄여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온도는 26℃ 이상으로 설정해 둡니다. 혹시 에어컨 옆에 방열체를 두지는 않았는지도 살펴보세요. 평소에 필터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러운 필터는 소비전력을 3~5%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매일 세탁물이 나오더라도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하는 게 좋습니다. 세탁물의 양보다 사용 횟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탁할 때는 찬물 세탁코스를 이용해 물을 데우는 데 드는 전력을 줄이고, 절약(급속) 모드를 이용하면 에너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탈수할 때도 5분 이내로 짧게 해주면 전기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기술 소개

2016년 상반기 신기술 지정 현황

지정번호(지정일자)	개발업체	신기술명	주요 내용
780 (2016.01.06.)	GS건설(주), (주)제일테크노스,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정림건축종합 건축사사무소, (주)지원이엔지	단부 절곡형 리브데크를 이용 한 동바리가 없는 장스팬 강재 거푸집 데크 공법(CAP Deck 공법)	냉간성형으로 제작한 단부 개방 데크에 초기 캠버 조정과 현지 프레싱 장치로 양 측단부를 45도로 절곡한 리브데크를 제작하 고, 강재 보 위에 설치한 후 개방 끝에 캡플레이트와 횡분배 브 릿지를 설치하는 동바리가 없는 장스팬 강재 거푸집 데크 공법 (CAP Deck 공법)
781 (2016.01.15.)	브릿지테크놀러지(주), GS건설(주), 극동건설(주), (주)삼보기술단, (주)천일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 선 거더의 제작을 위한 스마트 몰드 시스템 및 전도방지 인양 장치를 이용한 시공기술	곡선교에 적용 가능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 거더의 제작 및 시공 기술에 대한 것으로, 동일 교량 내에서도 서로 다른 거더 길이와 곡률반경을 가지는 각각의 거더를 한 조의 현장설치 스마트몰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기술과 현 장 여건에 따라 단부블럭, 전도방지 인양 장치를 적용하여 시 공이 가능한 기술
782 (2016.02.01.)	(주)선우씨앤에스, 양성모, 김연수	테이블형 다단 드롭 시스템을 이용한 총고 4.2m 이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소음저감 형 슬래브 거푸집 공법 (약칭 : DS공법)	다단 드롭형 서포트와 멩에·장선을 이용한 테이블 형태의 거 푸집 시스템을 이용하여 총고 4.2m 이하 철근콘크리트 구조 물에 적용되는 소음저감형 슬래브 거푸집 공법

지정번호(지정일자)	개발업체	신기술명	주요 내용
783 (2016.02.25.)	(주)무성건설, 수신건설(주), 평원개발(주)	안장형보수로봇을 이용한 하수 연결관 및 단축식보수기를 이용한 하수 본관의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SRPS공법)	공동으로 DCPD변성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아크릴레이트 수지를 이용하는 공법에서, 상기 수지를 다결면보수재에 함침하고 조정 장치에 안장형보수기와 실린더형보수기가 결합된 안장형보수로봇으로 본관 200~600mm와 연결관 100~300mm이 조합된 규격을 시공할 수 있는 하수 연결관 비굴착 보수공법(SRPS-J), 상기 수지를 반밀폐형 유리섬유 보강재에 함침하고 FRP재질의 단축 프레임 양단 내부에 압착용 고무를 열접착한 단축식보수기로 D150~1000mm까지 시공할 수 있는 하수 본관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SRPS-M)
784 (2016.02.29.)	삼호코넨(주), 삼호개발(주), 현대엔지니어링(주), (주)동명기술공단 종합 건축사사무소	다공성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및 분절형 다공성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교의 제작 및 시공방법	60MPa 이상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거더 복부에 다수의 중공을 형성하고 중공 부위를 정착부로 활용하며, 단단계 긴장이 가능하고, 분절제작 및 일체형으로도 제작 가능한 PSC I형 거더 공법
785 (2016.03.14.)	삼서건설(주)	맨홀틀 고정장치를 구비한 원형절단기와 콤퍼스형 맨홀 높이조절기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SM공법)	노면 원형절단을 위한 우물정자형 양방향 밀착 고정장치와 아우트바실린더로 맨홀틀과 포장 절단부를 인상하여 부딪폐기물을 외부에서 제거하고 노면 평탄성과 확보에 콤퍼스형 높이조절기를 이용하는 맨홀보수공법
786 (2016.03.23.)	(주)홍익기술단, (주)한국수안	플라스틱 블록과 레진콘크리트 지지기등을 사용하여 통로를 갖는 빗물저류조 시공방법	레진콘크리트 지지기등이 적용된 플라스틱 블록과 주철판넬을 이용하여 유지관리용 통로를 갖는 적층구조의 빗물저류조 시공방법
787 (2016.04.28.)	(주)다음기술단	1MHz 급 듀얼 소나 (Dual SONAR)기반의 수중구조물 및 하상부의 표면상태 영상 취득 기법	1MHz급 듀얼소나와 전동지그 프레임세트, 소나장비 운용을 위한 제어시스템, 듀얼 소나장비 운영 프로세스(듀얼소나 운영프로그램, 흔들림 보정 기법, 후처리 프로그램)로 구성된 수중구조물 및 하상부의 표면상태 영상 취득 기법
788 (2016.05.11.)	마이크로파우더(주)	개질유황결합재(Thiomer)를 사용한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공법	원유의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황에 폴리머 성분의 첨가제(디시클로펜타디엔계 2~4%)를 혼입 한 Thiomer를 사용하여 중온(130~140℃)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는 공법

지정번호(지정일자)	개발업체	신기술명	주요 내용
789 (2016.05.11.)	(주)흥신이엔씨, 대구도시철도공사, (주)흥신	EVA시트 방수층 하부에 수평 창하는 아크릴레이트를 합치 한 건식 비노출 방수공법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수지계(ethylene- vinyl acetate) 시트 방수층 하부에 수평창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시트지 파손에 대한 자가 보수 특성을 지닌 아크릴레이트를 합 성한 1°C이상, 내부포수 표면건조 상태에서 시공가능한 건식 비 노출 방수공법
790 (2016.05.20.)	(주)한진엔지니어링	포장도로에서 전기발열선을 활용한 상향열 집중식 융설시 스템 설치기술	도로 포장면의 자동차 바퀴 점유부분(양쪽 각, 폭 1m)을 홈 컷팅 후 열손실방지재, 전기발열선 및 열전도체를 포설·고정하고 컷 팅 홈의 남은 틈새 공간을 열전도 수지액으로 충전하여, 원격시 스템으로 감시·제어하는 상향 열전도 집중식 저 전력 소모형 친환경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기술
791 (2016.05.26.)	엠유컨스(주), (재)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강남화성(주)	경화시간을 다변화한 폴리우 레아 코팅재와 비산분진 저감 형 건이 장착된 맥동주기 Zero화 국산 도장장치를 적용 한 옥상 노출방수기술 (KSC 공법 : KCL Spray Coating 공 법)	기존 폴리우레아 코팅 공법의 단점을 개선한 공법으로 수분경화 형 프라이머를 적용해 바탕 콘크리트의 잔존 수분으로 인한 부 착력 저하를 방지하고, 후경화시스템을 도입하여 3~30분 경화 시간 조절을 통해 기존 폴리우레아의 미경화 및 평활성 저하 문 제점을 개선하고, 맥동주기 Zero화 및 적정온도 유지로 1 : 1 혼 합을 유도하여 균질한 도막 형성이 가능한 시공장비와 비산분진 이 저감되는 스프레이 건 등의 기술 개발을 이용한 옥상 노출 방수기술

※ 출처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www.kcnet.or.kr) ⇒ 신기술현황(건설신기술)



“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자기반성’을 우선시 하라,
 성공 대신 성장을 바라보라.
 —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
 ”

“
 덩치가 크다고 해서
 항상 작은 기업을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빠른 기업은
 느린 기업을 언제나
 이긴다.
 —
 존 챔버스,
 시스코 시스템즈 회장
 ”

MANAGEMENT

이달의 경영어록



'살인 더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여름철 폭염이 해마다 기세를 더하고 있다. 무덥고 습한 여름은 다른 계절보다 세균성 질병과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이다. 특히, 올해는 사상 최고의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측되므로 더욱 단단한 대비가 필요하다. 여름철 단골 질병인 일사병과 식중독의 증상과 예방법, 대처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여름철
건강관리
지킴서

더위야, 물렸거라!

식중독, 철저한 위생만이 예방책

» 장마와 불볕더위가 이어져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번식하며 식탁 건강을 위협한다. 식중독 사고의 30%가 6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하는 만큼, 음식물 보관·관리·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장마철에는 많은 비가 내려 하천이 범람하여 채소나 지하수에 병원성 대장균과 같은 식중독균과 노로바이러스 등에 오염될 수 있다.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평소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필수다. 손만 잘 씻어도 식중독의 70%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조리 전이나 식사 전에는 비누나 손세정제를 이용해 20초 이상 손을 씻는다. 이때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문질러 씻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물을 조리할 때는 육류나 어패류 등을 취급할 칼·도마와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만약 별도의 칼·도마가 없을 경우에는 과일 및 채소류에 먼저 사용한 후 육류나 어패류에 사용하여 교차 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 조리한 음식은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했다면 미련 없이 버리도록 하자.

장을 볼 때도 정해진 순서가 있다. 밀가루나 식용유 등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부터 과일·채소, 햄·어묵·치즈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 식품을 운반할 때도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 등을 이용하여 10℃ 이하 냉장상태로 차갑게 운반해야 한다. 집에 돌아와서는 장 본 순서와 반대로 정리하면 된다.

만약 구토·설사·복통 등의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병원 도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설사 환자는 탈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토록 한다. 지사제 등 설사약은 함부로 복용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르는 게 중요하다. 지사제는 설사를 통하여 자연적으로 몸 밖으로 배출되는 세균이나 세균성 독소 등의 배출을 막아 몸속에 쌓이게 하여 더 심각한 증상을 초래할 수도 있어 위험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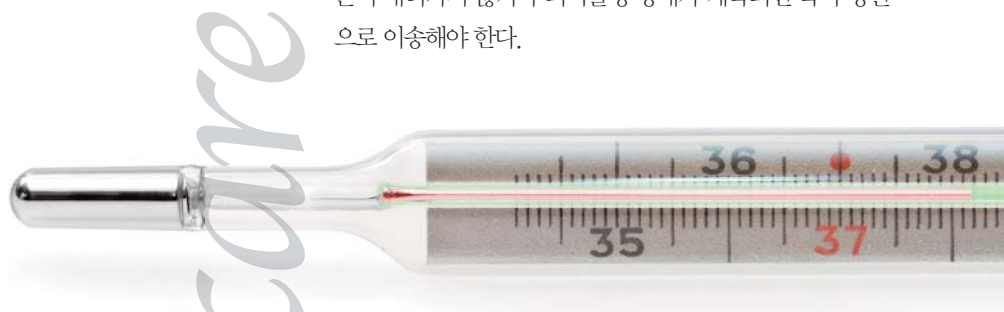
여름철 장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기름진 음식보다는 섬유질이 풍부한 통곡물과 해조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섭취하는 게 좋다. 단, 수박이나 참외처럼 당도 높은 과일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 적정량을 섭취하도록 유의한다. 특히, 여름밤 자주 찾게 되는 야식은 위와 장에 부담을 주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피하도록 한다.



목숨까지 위협하는 일사병

여름에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병은 일사병으로, 흔히 '더위를 먹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일사병은 머리나 목덜미 주위가 햇빛 아래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중추가 일시적으로 기능을 상실하면서 나타난다. 특히, 수면 부족 상태이거나 음주 후에 더욱 발생하기 쉽다. 짝 끼는 옷도 원인 중 한 가지다.

일사병 증상으로는 어지러움, 두통, 무기력감, 구역질, 눈 충혈, 홍조 등이 있다. 심하면 환각이나 경련을 일으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 자신이 일사병이라는 상태를 빠르게 인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어지럽거나 구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하던 일을 중단하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기온이 높고 습도가 50% 이상일 때는 땀이 증발하지 않아 건강에 해로우므로 야외활동을 삼가는 게 좋다. 주변에 일사병 증상으로 쓰러진 환자가 발생하면 일단 서늘한 곳으로 옮겨 눕히고 옷을 풀어 통풍이 잘 되게 한다. 그다음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 환자의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이 급선무다. 의식이 있으면 물을 마시게 하고,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 입으로 물을 공급하면 안 된다. 폐로 물이 들어가면 흡인성 폐렴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체온이 내려가지 않거나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되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healthcare

일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1시~3시 사이에는 무리한 작업이나 운동, 물놀이를 피하도록 한다. 야외 활동 시에는 진한 색의 짝 끼는 옷보다는 빛이 반사될 수 있는 밝은색과 통풍이 잘 되는 소재의 옷을 선택하자. 또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시로 물을 마시면 도움이 된다.

일사병 증상이 심해지면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열사병의 증상은 일사병과 비슷하지만, 몸의 열을 발산하지 못하면 심한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태양에 오랜 시간 노출되지 않아도, 장기간 무덥고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평상시 수분 보충과 체온 조절에 유의하면서 활기찬 여름을 만끽해보자.

끈질긴 생명력으로 가능성을 포착하는 건설인

“기업 생존이 곧 애국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세원(60) (주)세원이엔지 대표이자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부회장이炯炯한 눈빛으로 기업애국론을 강조한다. 그가 올해 건설의 날 장관 표창을 받은 까닭을 알만하다.

(주)세원이엔지

대표이사
김세원

적게 투입(input)하고 큰 이익(output)을 내는 게 경영의 궁극적 목표라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은 국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 기업이 쓰러졌다고 가정해보자. 그건 기업에 투자한 누군가의 자본이 사라진 것이고, 기업에 종사하던 누군가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며, 기업으로부터 거둘 수 있는 세금원이 증발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 국가적, 사회적인 손실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김 대표는 이익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비용 절감을 택했고, 이를 사업으로 연결해 대박을 터뜨린 의지의 건설인이다.

이제 그 스토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 그는 사실 건설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전공도 산업공학이었다. 하지만 대한제강을 거쳐 1985년 동부그룹에 입사하면서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8년 후 신규사업 발굴에 뛰어난 그는 철강선진국인 일본을 배우는 한편 신기술을 탐색하던 중 미국의 ‘PEB철골시스템’을 접하고 매혹됐다. 사전에 최적의 구조계산을 바탕으로 유연한 형태의 강구조물을 뜻하는 이 시스템은 기존 철골에 비해 비용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혁신적 장점을 갖추고 있었다. 더구나 공기 단축은 물론, 내부 기둥을 세우지 않고도 건물 폭을 넓힐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유로운 레이아웃으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어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에 최적의 공법이라 확신했다. 1994년 미국의 Varco Pruden 社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마케팅, 영업 등 2개월여 연수를 거쳐 어렵사리 신규사업을 시작하여 꽃을 피울 즈음 IMF 외환위기라는 역경이 들이닥쳤다. 팀원 13명이 구조조정 당하는 것을 보고 “아차, 평생직장으로 착각하고 살았구나. 나도 언제 저런 상황이 닥칠지...”라는 생각에 새천년 8월, 회사와 동료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빛 정리 후 남은 달랑 2천8백만원으로 PEB 철골의 불모지인 부산에서 1인 사무실을 내고 사업의 길로 나섰다.

돌이켜보면 20여 년의 직장생활은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다. 육도 많이 먹었지만 일단 업무에 임하면 그 일의 일인자가 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퇴근도 포기하고 업무파악에 매진한 결과, 해보고 싶은 것을 마음껏 펼치며 승승장구했다. 그러자 그룹 내에서 ‘사막에서도 난방기 팔고 에스키모에게 에어컨 팔 놈’이라며 ‘잡초’라는 별명이 따라왔다.

사업 초기 설계사무소, 건설사, 옛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홍보한 결과 수주량이 점점 늘어갔으나, 창업연수비(부실채권)가 발생하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이 사업이 향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심사숙고 후 무조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은행 지점장을 만나 사업의 개요와 방향에 대해 설명했어요. 무담보로 마이너스 7천만원을 받아낸 거죠. 집을 팔거나 전세를 줄 경우 사전 통보해 준다는 각서 한 장만 써주고 ‘사람을 믿으라’고 오히려 큰소리쳤죠.”

그 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직원 1명과 2002년 10월에 김 대표의 이름을 걸고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재창업을 하였다. 그동안의 홍보와 적잖은 실적이 신규공법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면서 벵센타이어(6개동), 울산의 자동차 협력업체, 이마트 물류창고, 실내 테니스장 등 수주가 이어졌고, 부산신항의 물류창고 북에 편승해 MCC로지스틱스(8,800여 평), 대우물류(현 DESC) 2개동(3,000평/10,600평), Pansta물류창고(4,400평) 등 직원 3명으로 매출 100억원을 돌파하며 PEB 불모지인 부산·경남 일원에서 8년간 동부제철의 ‘최우수 빌더’로 선정되는 기쁨도 누렸다.

김 대표에 ‘고객에서 믿음을 주는 자세’의 비결을 물었더니 ‘신뢰’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아직도 값싼 중국산 H-Beam 등 수입산을 한 가닥도 사용하지 않고 우직하게 국산만을 사용하여 제대로 된 건축물을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탁보다 수요자의 담당부처 사장까지 영업해 나가는 ‘폼 잡지 않기’죠.”

또한, 그는 조금 손해본다는(양보) 개념으로 많은 거래처와의 친화력을 유지하면서 ‘협상의 귀재’로 불리기도 한다. ‘다 털어도 2천8백만원’ 인데 여기까지 오면서 주변인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성장했으니, 사회에 환원이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생각으로 매년 중학



교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불우이웃돕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사업 초기 미 해군과의 사업 일화 한 토막을 들었다. 해군은 PEB 철골을 자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는 것을 국산화시키고, 2억여원의 철골, 판넬 그리고 시공지도까지 포함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40% 공정을 진행하고 자금난에 봉착하여 미 해군 대위에게 중간 기성(원계약은 종료 후 100%) 자금을 지원해 달라 요청하니 대뜸 100% 지급하겠다고 답변을 하더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상대를 생각해 “내가 돈만 받고 달아나면 당신도 해고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그 대위는 “Mr. Kim을 믿는다”는 단 한마디만을 전했다. “자금 때문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노크하였으나 문전박대당했는데 외국인인 나를 믿어준다는 말에 눈물이 핑 돌았죠.” 이에 감동한 김 대표는 신뢰에 보답하고자 더욱 성실히 공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기술력과 지원력을 인정받아 지금까지 독점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그가 사랑하는 사업이 한 가지 더 있다. 10년 전 북한국보 56호인 강서청산수 공장 신축에 건설업계에서는 국내 최초로 참여한 것. “북한 고려항공 전세기편으로 김포공항에서 평양 순안공항까지 직항해서 갔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북측 인사들로부터 찬사까지 들어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지금은 남북관계가 매우 경색돼 있는데, 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적인 교류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김 대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자세로 내실을 다지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고심하여 재도약을 위한 강한 체질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곧 퇴보이며, 기업의 생존이 곧 애국이다’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맞는 말이다. 김 대표의 말대로 안주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다. 미래를 열어있는 가능성의 창고라 한다면 그 많은 가능성들 중 목표를 정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게 바로 전략이 아닐까.

글. 언론인 최원열

고난을 기회로 이겨낸

‘미장의 달인’

‘고난의 역설’이란 말이 있다. 어떤 이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항상 하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판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고난은 반가운 손님이자 신의 은총이기도 하다. 그들에게 고난은 축복의 또 다른 얼굴이다. 19세기 영국의 저명한 사회비평가 존 러스킨이 갈파했다. “세상에 나쁜 날씨란 없다. 서로 다른 종류의 날씨만 있을 뿐”이라고. 맞다. 고난은 새로운 도전을 위한 기회다. 몸과 마음을 단련시켜주는 고마운 동반자이기도 하다.

(주)흥림건설

대표이사
강갑균

주식회사 흥림건설 강갑균(68) 대표. 그는 미장의 달인이다. 건축공사에서 벽, 천장, 바닥에 흙이나 회, 시멘트를 이겨 바르는 일만 반세기 넘게 했으니 당연하다. 그에겐 직업의 귀천 따위를 따질 겨를이 없었다. 피멍이 든 손이 까지고 부르토도록 오로지 바르고, 또 발랐다. 천직이자 유일한 자랑거리다. 그리고 미장 하나로 성공했다. 정부도 장인 정신의 귀감을 보여준 강 대표에게 올해 건설의 날을 맞아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강 대표의 삶은 인고의 세월이자. 인내의 연속이었다. 경남 고성 출신인 그는 친척이 있는 부산으로 올라와 16살 때부터 이른바 ‘노가다(막일꾼)’를 시작했다. 현장 일을 배우면서 서러움도 많이 겪었고 헤아릴 수 없이 울었다. 동기가 한 명도 없어 혼자서 외로움을 이겨내야 했다. 당시 하루 일당이라 해봐야 250원. 쌀 한 뭇박과 연탄을 사면 남는 돈이 별로 없다. 일당에서 온갖 명목으로 떼어가니 어찌 돈을 모을 수 있겠나. 일만 하고 노임을 받지 못하는 날도 부지기수. 그저 ‘오야지(현장책임자)’가 시킨 대로 묵묵히 일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일이 없는 겨울을 넘길 수 있고, 봄이

되면 현장일을 나갈 수 있으니 말이다. 그나마 흠뻑이었으니 모질게 견뎌낼 수 있었다.

그렇게 19년이 흘러 강 대표는 삼도산업을 세운다. 처음으로 사장이 된 뿌듯함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전문건설 개념이 없었던 때여서 회사 운영이 참으로 힘들었다. 그래도 어린 시절 뼈아픈 기억이 있어 노임은 단돈 10원도 체납하지 않았다. 하지만 건설경기가 엉망이어서 견디다 못해 4년 만에 문을 닫고 만다. “입에 풀칠은 해야 하기에 홀로 작업현장에 나섰어요. 날일(일당제)을 하면서 근근이 생활해나갔죠. 어렵사리 터득한 노하우를 인정받은 터라 일이 끊기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집사람도 파출부와 보험회사원 등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때 현장에 나가는 제게 교통비를 주여주던 일이 눈에 선합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참고 또 참자고. 아내도 그에게 말했다.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지 않냐고. 언젠가는 해 뜰 날이 찾아올 거라며. 어떻게든 다시 사장이 돼 노임을 풍족하게 주는 꿈을 잃지 않았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식구들도 그의 소식을 듣고 하나둘 돌아왔다. 재기의 희망은 부풀어 올랐고, 마침내 반전의 계기가 찾아왔다.

외환위기였다. 그의 실력과 믿음성이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면서 공사 물량이 확 늘어났다. 그리고 새천년 7월 ‘꿈이 이뤄졌다’. 홍립 건설 창업. 업체는 날개를 단 듯 성장일로를 걸었다. 그리고 지금 임직원 6명에 연간 공사실적이 120억 원을 훌쩍 넘는 탄탄한 전문건설업체로 자리 잡았다. 그는 체력에 문제가 없어 앞으로도 6~7년은 공사판에서 뒹굴 수 있다고 자신한다.

미장의 고수가 되는 비결을 묻자 “흠을 이겨서 바르는 일을 끊임없이 연마해 흠손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



고 거침없이 대답한다.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힘든 일이라는 거다. 그걸 참고 넘어설 강한 의지와 인내력이 있어야 한다고.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을 즐겁게 하고 최선을 다하며, 나만의 노하우를 만들어가는 게 ‘미장의 법칙’이라고나 할까. 강 대표는 저울로 잰 듯이 흠손으로 척 뜨기만 하면 정확하고 부드럽게 벽에 달라붙는 예술적 경지에 올라 있다. ‘미장의 달인’ 칭호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그런 재주가 지금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젊은이들이 건축 미장일을 3D업종으로 여기고 외면하기 때문. “도제시스템으로 이어져 오던 미장기술 인력 양성이 20년 넘게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집짓기 기술도 사라져버릴 판이에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기술을 전수할 후배들이 하루빨리 나타났으면 하는 게 그의 바람이다. 그러지 않으면 인력이 없어 조립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강 대표는 직업의 귀천은 이제 없다며 장인 정신과 주인 의식, 그리고 프로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 자신감을 느끼고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고 정주영 왕회장이 말했다. “해봤어, 해봤냐고?” 그러면서 긍정마인드를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일을 시작하며 ‘반드시 된다’는 확신 90%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로 100%를 채운다.” 긍정은 천하를 얻고, 부정은 강퍽을 찬다는 말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글. 언론인 최원열



부산광역시 중구의 인쇄골목인 동광동에는 부산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장소가 있다. 40계단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곳은 각종 영화와 TV 프로그램에서 유명세를 치르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근처의 중앙역과 40계단을 연결하는 450m가량의 길은 지난 2004년 '40계단문화관광테마거리'로 지정되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부산의애환과향수를담다

중구 동광동 인쇄골목

40계단



살아 있는 부산의 역사

40계단의 역사는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02년부터 1908년까지 현재의 부산경남세관 본부 부근의 북항이 매축되었고, 중앙동에는 부산역 광장인 새마당이 생겼다. 이 무렵 해안가와 중구 동광동 5가로 통하는 언덕 윗길, 매립지를 잇기 위해 복병산 일부를 깎고 주택지를 만들었다.

본격적으로 이곳의 역사가 시작된 때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대다. 당시 부산 중구는 교통·행정의 중심지로 많은 피난민이 판잣집을 짓고 모여 살았던 지역이다. 영주동 뒷산, 보수동, 동광동 일대는 바로 앞 부두에서 들어오는 구호물자를 내다 파는 장터나 피난민의 가족 상봉 장소로도 이용됐다. 영주동과 옛 부산역, 국제여객두부를 왕래하는 일이 많아지자 40계단은 더욱 그 가치를 받았다. 피난민들은 매일 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치열한 삶을 이어갔다. 1951년 박재홍이 부른 '경상도 아가씨'라는 곳에서도 이곳을 소재로 사용하며 친근함을 더했다.

한국전쟁 휴전 후인 1953년 11월 27일에는 '역전 대화재'가 발생해 이 일대가 모두 불탔다. 엄청난 피해로 한동안 복구하지 못했지만, 1950년대 후반 들어서 시작한 복구와 함께 도로가 바뀌고 부산우체국도 이동했다. 1945년에 촬영한 항공사진과 지금의 지도를 비교해보면 옛 40계단의 위치가 현 동광동 새마을금고 맞은편에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의 위치와는 25m가량 떨어진 곳이다. 중구청은 1993년 8월 6일 40계단에 가로 60cm, 세로 180cm, 폭 60cm의 '사십계단기념비'를 세우고 그 뒤쪽에 '경상도 아가씨'의 노래 가사와 계단의 유래를 새겨 넣었다.





» 운영일정 안내

역사문화투어 : 4~11월(매주 수, 토) 10:00~12:00
 역사진로체험투어 : 4~11월(매주 목, 금) 오전, 오후
 예술체험투어 : 5~10월(2, 4주 주중) 10:00~12:00

1. 40계단 기찻길 조형물 내 안내판
2. 아코디언 켜는 사람
3. 아버지의 휴식
4. 전차를 탄 가족
5. 40계단 문화관광 테마거리 안내판

40계단 문화관, 체험투어 운영

40계단 위쪽 길을 따라 100m 정도 가면 동광동주민센터가 있다. 중구청은 이곳의 2003년 2월 12일 이곳의 5, 6층을 '40계단 문화관'으로 개관해, 시민을 위한 전시실을 갖췄다. 5층 상설전시실은 1876년 개항 이전부터 개항기, 일제강점기, 광복, 6.25전쟁 등 중구 형성과정과 역사를 전시 중이다. 밥벌이와 물 전쟁 등 삶의 애환이 구절구절 묻어나는 그 시절의 추억은 물론, 1950년 전후로 부산 중구를 중심으로 활동한 문화예술인 관련 물품 등 다양한 전시물이 방방곡곡을 기다린다. 6층 특별전시실에서는 지역 예술가 기획전을 비롯한 다양한 특별 전시로 이곳만의 특색 있는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40계단 문화관에서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일반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체험투어도 운영한다. 투어는 역사문화, 예술체험(일반 시민) 및 역사진로 체험(청소년 단체)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사전예약에 한해 해설사 2명과 함께 체험할 수 있다. 투어에 따라 진행 일정이 다르므로 신청자는 전화(☎600-4044) 또는 이메일(damalee@korea.kr)로 문의한 후 참가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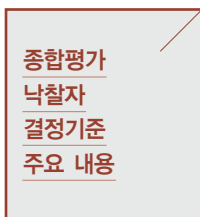
40계단 문화관광 테마거리

40계단 문화관광 테마거리는 국민은행 중앙동지점에서부터 40계단을 거쳐 40계단문화관과 스타벅스까지 약 450m에 이르는 거리를 말한다. 유서 깊은 40계단 주변을 1950~1960년대 분위기에 맞도록 재현하여 추억을 회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조성하였다. 중구청은 2002년 1월 31일 테마거리 조성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 2003년 6월 5일 착공하여 2004년 4월 20일 토목공사를 완공하였다. 차도·보관정비, 상징게이트·조형물설치, 가로수 식재, 전력·통신시설물 지중화 사업 등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40계단 문화관광 테마거리는 2004년 6월 부산시 종합평가 최우수 거리로 선정되어 사업비 3억원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곳은 한국전쟁 피난시절의 애환과 향수가 담겨 있는 특색 있는 테마거리 조성으로 새로운 체험관광 명소화로의 문화관광 중심지의 위상을 향상하고 있다. 또한, 매년 '40계단 문화 축제' 등의 개최로 40계단의 역사성과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행정자치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시행

- 행정자치부에서는 3월 2일 자로 300억원 이상 공사의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제정하고 5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부 예규 제47호, 2016.3.2.】

1. 주요 내용

300억원 이상 공사의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 가격 외에 기술능력, 시공품질, 하도급적정성 등 심사
-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한 하도급관리계획 심사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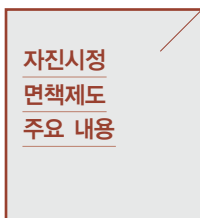
※ 하도급계약금액이 예정가격의 60% 이상, 원도급금액의 82% 이상 시 만점

2. 시행일자 : 2016.5.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자진시정 면책제도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최근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등의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 및 신속한 하도급대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 스스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시정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벌점 등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개시일 이전 자체 시정 시(하도급대금지급 등) 시정조치 등 벌칙 배제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개시일(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 직권조사의 경우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 중 뒤의 날) 이전에 해당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확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대금지급 등 스스로 시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징금, 벌점 등을 배제할 수 있음

※ 법률근거 및 시행일자 :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21.의 사' (2015.10.15.부터)

2. 조사개시 후 하도급대금 지급 시 과징금 부과 대상 제외 가능

법 위반 행위를 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법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를 위반한 미지급금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법률근거 및 시행일자 :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2, 과징금의 부과기준 '1.의 나' (2016.7.25.부터)

3. 조사개시 후 하도급대금지급시 벌점 부과 제외

벌점의 부과기준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미지급금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함에 따라 경고를 받은 경우 등은 그 벌점을 0점으로 함

※ 법률근거 및 시행일자 : 법 시행령 별표3, 벌점의 부과기준 '2.의 다' (2016.1.25.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가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처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324호, 2015.5.18.)됨에 따라,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정하고,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대통령령 제27176호, 2016.5.17.】

1. 안전관리계획 수립 건설공사 범위 확대(제98조)

- 천공기(높이 10m 이상), 타워크레인이 사용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 인·허가기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 시행일자 : 2016.5.19.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2. 건설사고 발생 미신고 시 과태료 기준 신설(별표11)

-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지체 없이 발주처 또는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1천만원 이상의 재산 피해
- ** 1차 : 200만원, 2차 : 250만원, 3차 이상 : 300만원
- ※ 시행일자 : 2016.5.19.부터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안내

●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사고 발생으로 업무정지 및 벌점 처분받은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등급 산정 시 해당 분야 역량지수 감점(3점 이내)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공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55, 2016.6.15.)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55(2016.6.15.)】

1.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감점(별표3 제1호)

- 건설사고 발생으로 업무정지 및 벌점 처분받은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3점 범위 내에서 해당 수행 분야(설계·시공,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역량지수 감점

감점기준	감점
3개월 초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3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벌점 처분을 받은 경우	1

※ 감점(최대 3점)은 건설사고 발생 시마다 누적, 2년간 유효

2. 건설 관련 국가기술자격 추가(별표1)

- (광업 분야) 광산보안기능사
- ※ 시행일자 : 2016.6.15.부터

전공 과목의 차이

대학 캠퍼스에서 주먹질하며 싸우고 있는 학생들을 보고
대학교수들이 내리는 촌평은 전공에 따라 달랐다.

- ▶ 역사학과 : “너희들이 싸운다고 세상이 바뀌냐?”
- ▶ 수학과 : “분수도 모르는 녀석들.”
- ▶ 심리학과 : “저렇게 싸우는 심보가 문제야...”
- ▶ 식품영양학과 : “저 녀석들은 무얼 먹고 저렇게 싸우냐.”
- ▶ 의상학과 : “저러다 옷 찢어질라.”
- ▶ 행정학과 : “뭐해~경찰 불러!”
- ▶ 법학과 : “너희들 모두 구속감이야 짜샤...”
- ▶ 경영학과 : “싸우면 둘 다 손해네.”
- ▶ 생물학과 : “박 터지게 싸우네.”
- ▶ 축산학과 : “저런, 개만도 못한 놈들.”
- ▶ 통계학과 : “저놈들 일주일에 한 번꼴로 싸우네.”
- ▶ 영문과 : “Fighting!”
- ▶ 러시아학과 : “스발노무스키.”
- ▶ 사진학과 : “너희들 찍혔어...”
- ▶ 아동학과 : “애들이 볼까 겁난다.”
- ▶ 건축학과 : “저 녀석들 기초가 안 돼 있어.”



우리는 왜 IBK카드인가!

우리협회에서는 회원의 복지 및 편의 제공을 위해 2014년 3월 IBK기업은행과 제휴를 맺고 협회 회원사만이 누릴 수 있는 맞춤형 특화카드인 『대한전문건설협회-IBK 제휴카드』를 출시하였습니다!

제휴카드의 혜택

01. IBK기업은행의 기본서비스 제공 외 대출금리 및 환율우대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02. 기존 카드보다 많은 포인트적립(제휴카드 최대 0.5%, 기존카드 0.3%)
03. 세무지원 서비스(부가세환급지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 현재 IBK은행과 거래하시는 회원사는 협회로 연락주시면 바로 전문건설인 맞춤형 카드로 변경해 드립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051-633-0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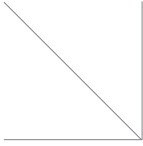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기업은행이 만나
전문건설 발전을 위해
**더 큰 혜택을
건설하다**





건강보험 · 국민연금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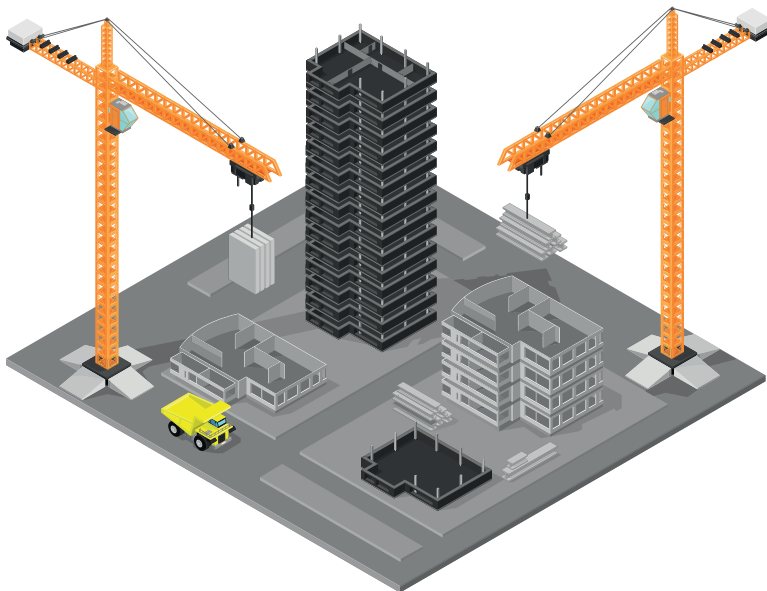
● 부산시회는 4월 11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누락으로 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 시 건강보험 · 연금보험료를 소급 · 추징당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안내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산업의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은 타 산업과 달리 건설현장을 건설업 본사와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적용하므로 건설현장별로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한 건설현장에 한하여 당해 현장에서 1개월간 20일 미만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 ·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1개월간 20일 미만으로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건설업 본사 소속 가입대상자로 적용되어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회원사에서는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건설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20일 미만 근로하면 건강보험 ·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어 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 시 보험료를 소급 · 추징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회원사의 주의를 당부했다.

표준품셈 개정을 위한 실사 가능한 현장 추천 협조

실사 현장 추천 저조...
현장 실사는 개정을
위한 필수 작업



● 정부는 매년 상 · 하반기 2회(7월, 12월)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 중 공사비 산출기준이 없는 항목을 발굴, 표준품셈을 개정해 발표하고 있다.

표준품셈 개정은 현행 품셈에서 불합리한 항목이나 신설이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여 현장 실사를 통해 품을 도출하고, 표준품셈 심의위원회(한국건설기술연구원)를 거쳐 최종 개정 · 확정된다. 그러나 품셈 개정 전 선행 작업인 실사를 위한 현장 추천이 저조하여 품셈 개정업무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며, 상황이 필요한 품 항목 또한 개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협회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부산시회는 2017년도에 적용될 표준품셈에 대하여 불합리한 품 항목이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실사 가능한 현장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줄 것을 회원사에 당부했다.

한편, 현재 2017년도 적용 품셈 개정 대상 항목은 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2016년 1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결과

2016년 1분기
동향 및 실태
주요 내용

[조사목적 및 방법]

- (조사목적) 분기별 설문조사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실태 및 기업경영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및 정책건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조사방법) 16개 시도회에 가입한 주요 전문건설업체에 재직 중인 모니터 위원(총 289명) 대상 자체식 설문조사

[주요 내용]

- '16년 1/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겨울이 지나면서 발생한 계절적인 반등으로 작년 동기와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2/4분기는 공공기관 발주 및 자재수요 증가 예상으로 1/4분기 대비 증가 예상
- 전문건설업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업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은 '수주부진'을 꼽음
-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발주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있지만 여전히 민간공사 등에서 전문업체들의 공사대금수금이 원활치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이중계약서 작성, 특정업체 하자보증서 발급 강요, 무리한 하자보수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건설자재 화학시험 지원 안내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품질시험실)에서는 철근 및 강재의 화학성분 분석 시험과 건축물의 바닥에 사용하는 PVC 바닥재, 건축물의 단열재로 사용하는 발포 폴리스티렌 등에 대한 품질시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축물 안전제도가 국민체감형으로 개선 시행(예정)됨에 따라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샌드위치 패널, 단열재 또는 철근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불시 현장점검이 실시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사고와 경주 마리나리조트 붕괴 사고는 부적합한 철강 제품 사용이 원인으로 판명되었다. 구리, 니켈, 크롬의 함유량이 국산 제품보다 현저히 낮아 녹 발생 가능성이 높고 시설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국산 철근, 일본산 철강제품 수입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또한, 주거문화가 대규모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변화함에 따라 최근 입주민 간 층간소음 민원분쟁이 대두되는 실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PVC 바닥재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불량 단열재 사용으로 인한 곰팡이 발생, 결로 하자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품질시험실)에서는 전국 국립·공립 시험기관 중 유일하게 지역업체 보호와 육성을 위해 부산에 소재지를 둔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품질시험 수수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직접 방문하여 시료와 의뢰서를 제출하는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료는 택배(소포), 의뢰서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으니, 회원사에서는 자재 품질시험과 관련된 업무에 활용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부산시 금정구 개좌로239번길 39(회동동)
TEL : 051-550-7321
FAX : 051-550-7329

복개구조물 등의 보수공사 발주 시 해당 전문건설업체 참여 사례 홍보

복개구조물 및 하수박스 보수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도 입찰에 참여토록

● 부산시회는 지난 3월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교육지원청, 공사·공단 등에 복개구조물 및 하수박스 보수공사 발주 시 해당 전문건설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동안 부산지역 발주기관에서는 복개구조물 및 하수박스 등 각종 구조물 보수·보강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만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였다.

이에 시회는 동 공사에 대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가 시공하고 하자보수까지 완료하였으나,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만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규제이므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도 동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한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시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개구조물 및 하수박스 보수공사 등에 대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으며, 회원사에서도 견실시공과 함께 원활한 공사 마무리를 통해 동 공사에 대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 입찰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가설기자재 설치 해체공사 관련 불법 재하도급 금지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으로 수행

● 한국가설협회에서는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가설기자재 설치·해체공사를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재하도급 하거나 재하도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등의 불법 재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협회에 협조 요청해 왔다.

이에 부산시회는 불법 재하도급 관련 사항을 회원사에 안내하며, 가설기자재 설치·해체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에 대해 각 공종별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적법한 재하도급이 이루어져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전문공사의 재하도급 충족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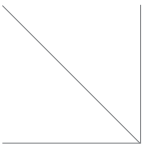
- ①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 ②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
 -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 승낙을 받을 것
 - 공사의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공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대금직불 합의, 재하수급인의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 연대책임 합의 등

[불법 재하도급 제재처분]

- ① 건설업 무등록 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불법 재하도급을 한 하수급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 :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재하도급 금액의 30% 이하의 과징금
- ③ 불법 재하도급으로 하수급인이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수급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6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
(<http://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건설현장 산업재해 업무처리 매뉴얼」 안내



● 부산시회는 건설현장 산재 발생 시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적절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협회에서 제작한 「건설현장 산업재해 업무처리 매뉴얼」을 회원사에 안내하고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 산재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업무처리에 활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

매뉴얼에는 산업재해의 정의 및 유형,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처리 요령 등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으며, 위장산재 선별 사례 및 관련 유권해석도 포함되어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홍보

신규등록업체는
의무교육,
영업정지업체는
임의교육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근거하여 **2016.2.12. 이후에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자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탁(대한전문건설협회 교육기관 지정)하여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 포함)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 이후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업 등록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내 교육이수 시 영업정지 기간이 최대 15일 감경될 수 있다.**

교육을 받은 건설업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수료증을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교육수료증을 제출해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업 교육 이수사항을 기록·확인받을 수 있다.

교육 신청방법은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홈페이지(edu.kosca.or.kr)를 통하여 교육일정 및 절차 등을 확인 후 신청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건설교육센터(☎02-3284-1080)로 문의하면 된다.

※ 교육일정 및 과목 ⇒ 47페이지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참조



제24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참가신청

● 건설기능인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와 기능수준 향상을 통한 건설공사 품질향상 도모를 위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고 우리 협회 등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24회 건설기능경기대회가 오는 9월 23일(금)에 개최된다.

이에 부산시회는 회원사 소속 우수 기능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제 24 회 건설기능 경기대회 참가신청

1. 참가신청 기한 : 2016.7.22.(금)까지

2.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3. 신청장소 :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건설정책과)

4. 대회 관련 사항

가. 대회일시 : 2016.9.23.(금), 08:00~18:00

※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9.22(목) 입소 및 접수

나. 장소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충북 음성군 소재)

다. 기능경기 종목 : 거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철근, 타일, 도장, 조경, 전산응용도목제도, 실내건축제도, 방수

라. 참가신청 자격

• 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전문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당해 해당직종 기능인(상시 고용된 자, 현장채용기능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1) 현장(또는 참가직종)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2) 본 기능경기대회의 참가직종에 입상한 사실이 없는 자

마. 제출서류

- 건설기능경기대회 참가신청서 1부
- 참가선수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기능경기대회 안전이행 서약서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이력서 1부

바. 입상자 시상계획

- 1위 : 상금 200만원 및 국토교통부장관상
- 2위 : 상금 100만원 및 대회장상
- 3위 : 상금 70만원 및 대회장상

사. 입상자 특전

- 입상자 전원 : 해외산업연수 실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직종 기능사 자격시험 면제
- 참가자 전원 참가장려금 지급
- 부산광역시장 표창대상자 추천(예정)

5. 문의사항 : 부산시회 건설정책과 (☎051-633-0260)



2016년도 경영상태 평가 및 2015년도 건설공사 실적 확정

- 부산시회에서는 7월 1일 정부·공공공사의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에 적용할 2015년도 전문건설공사실적을 확정하고 2015년도 공사실적 확인서 및 2016년도 경영상태 등 제증명서를 발급하며, 올 하반기부터 발주되는 공공공사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2015년도 말 기준 전문건설업종 경영상태평균비율(7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이 확정 공시되었음을 안내하였다.

2015년도 말 기준 전문건설업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표

구 분	실내건축	토공	미장·방수·조적	석공	도장	비계·구조물해체	금속구조물·창호
부채비율	76.26%	96.33%	76.83%	100.56%	72.54%	104.19%	92.91%
유동비율	150.24%	123.99%	113.25%	103.53%	128.41%	109.63%	126.87%

구 분	지붕판금·건축물조립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보링·그라우팅	철도·궤도	포장	수중
부채비율	104.21%	85.03%	68.9%	88.79%	121.94%	61.21%	67.83%
유동비율	103.53%	138.28%	193.48%	149.62%	143.21%	197.17%	177.63%

구 분	조경식재	조경시설	강구조물	철강재	삭도	준설	승강기
부채비율	115.07%	93.2%	85.6%	223.43%	158%	160.65%	112.78%
유동비율	110.07%	106.94%	140.87%	102.35%	57.55%	141.36%	107.84%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	-	0.1%	-	0.09%	-

※ 적용기간 : 2016년도 말 기준 업종별 평균비율 공시 전까지 사용

전문건설업종 부채비율은 평균 103.15%로 전년(97.05%) 대비 6.10%포인트 증가했고, 유동비율은 평균 129.80%로 전년(152.07%)대비 △22.27%포인트 감소하였다. 업종별 부채비율은 포장(61.21%)이 가장 낮았고 철강재설치공사(223.43%)가 가장 높았으며, 100%이상은 8개 업종이다.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감소한 업종은 7개 업종으로 미장·방수·조적(△8.35%), 도장(△4.34), 보링·그라우팅(△21.73), 포장(△15.43%), 강구조물(△23.37%), 삭도설치(△25.39%), 승강기설치(△9.36%)이며, 반면 조경시설물설치(26.95%)과 철강재설치(62.32%)의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업종별 유동비율은 포장(197.17%)이 가장 높으며, 전년 대비 14.6% 상승하였고 도장(0.53%), 보링·그라우팅(4.26%)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유동비율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석공(△102.03%), 조경시설물설치(△69.95%), 철근·콘크리트(△52.73%), 비계·구조물해체(△44.64%), 토공(△44.15%)의 유동비율이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공시



- 7월 29일부터 시공능력평가 및 관련 제증명서(시공능력평가확인서, 시공능력순위확인서, 시공능력확인서)가 발급되고, 건설업 등록수첩에 기재가 시작된다.

부산시회는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종을 코스카 홈페이지(www.kosca.or.kr)에 공시한다.

업체별 공시내용은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업종별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업종별 2015년도 건설공사 실적 및 보유기술자 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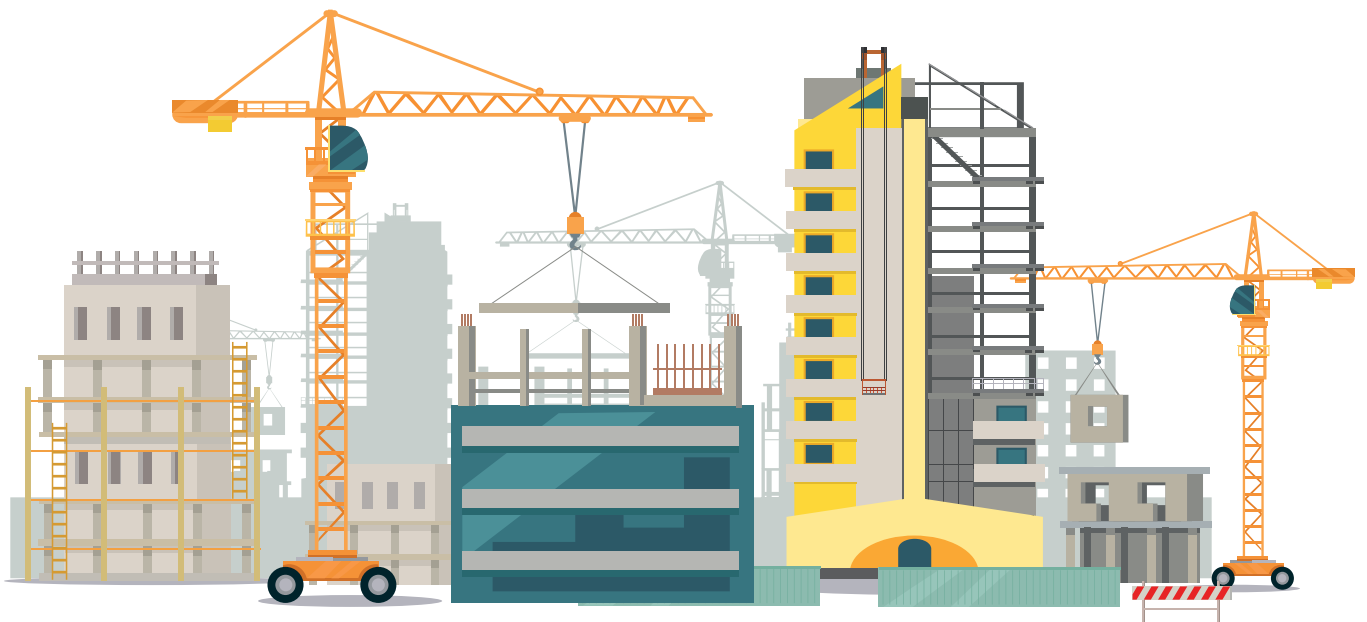
2016년 건설업 외국인력(E-9) 잔여쿼터 채용 안내

건설업 분야 외국인력 7월 1일부터 추가접수

- 정부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건설현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7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전국 건설현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추가 접수한다. 이번 배정은 2015년 건설업 외국인력 도입 쿼터 2,280명에 대해 지난 1월과 4월에 정규 배정 후 남은 잔여 인원 300명에 대한 추가 배정이다.

선착순이니만큼 조기 소진될 우려가 있어 외국인력 활용계획이 있는 업체는 내국인 구인노력 등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을 사전에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건협 홈페이지(www.cak.or.kr) 공지사항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

※ 문의 : 대한건설협회(☎.02-3485-8303, 8453)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의5제4항에 의거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업 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아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과정을 개설하여 2016. 6. 3일부터 실시 할 예정이며, 교육은 건설업 신규등록자 및 법령을 위반한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앞으로 건설관련 법령·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윤리, 건설공사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 의식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건설업 교육대상

• 건설업 신규등록자(추가 면허등록 제외)

[의무사항]

- 2016. 2. 12이후 건설업 신규등록 업체
 - 등록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 건설업 등록 후 6개월 이내 교육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영업정지 처분 이후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업등록자

[임의사항]

- 2016. 2. 12이후 영업정지 처분 중에 있는 업체
 - 영업정지 기간 내
 - ※ 교육이수에 따른 인센티브 : 영업정지기간 최대 15일 감경
 - ☞ 법인 대표자 수료시 15일, 등기부상 임원 수료시 1인당 5일 감경(최대 3인)

■ 2016년도 교육일정

구 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고
1주	3일(금)	1일(금)	3일(수)	2일(금)	7일(금)	2일(수)	2일(금)	
2주	10일(금)	8일(금)	12일(금)	9일(금)	14일(금)	11일(금)	9일(금)	
3주	15일(수)	15일(금)	18일(목)	-	21일(금)	18일(금)	16일(금)	
4주	24일(금)	22일(금)	26일(금)	23일(금)	28일(금)	25일(금)	23일(금)	
5주		29일(금)		30일(금)			30일(금)	

※ 부산 교육일정 및 장소 : 2016.8.5(화), 부산교원빌딩(부산역 광장 옆)

■ 교육과목

교육과정	교육내용	시 간
건설업자 윤리경영	○ 기업의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등	1.5H
건설산업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국가계약법 등	4.5H
건설공사 안전관리	○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등	2H

■ 신청방법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홈페이지(edu.kosca.or.kr)를 통하여 교육일정, 교육안내, 교육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문의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담당자 ☎ 02-3284-1080

THE SYDNEY OPERA HOUSE



대담한 실험의 위대한 결과물

오스트레일리아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 오스트레일리아 하버 브리지 남동쪽에는 시드니를 상징하는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다. 시드니 항구에 정박한 요트들의 돛을 닮은 조가비 모양의 지붕이 푸른 바다와 조화를 이루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그 주인공이다. 극장, 녹음실, 음악당, 전시장, 도서관을 갖춘 이곳은 시드니 심포니 오케스트라, 오스트레일리아 국립오페라단·무용단, 그 외 여러 연극단의 본거지로서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시드니의 아이콘이 되었다.

1956년 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는 세계 최고의 설계 인재를 유치해 시드니의 주요 문화센터를 건설하고자 국제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대회에서는 설계상의 한계나 비용 한도도 설정하지 않았고, '2개의 공연장으로 2가지 성능을 지닌 건물' 설계만을 요구하였다. 해외 예술가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화제가 된 이 대회의 결과,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정된 건축가는 덴마크의 이외른 우촌이었다. 그는 전례가 없는 건축 형태와 새로운 기술, 재료를 바탕으로 한 설계안을 선보이며 세계

건축인들의 시선을 끌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는 우촌 대신 자국의 건축가를 선택하라는 대중의 압력을 받기도 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건설하기까지는 총 16년이 걸렸다. 이는 예정된 기간보다 6년이나 늦어진 것으로, 건설비용도 예상보다 10배를 초과했다. 디자인 솔루션과 조가비 구조 건설에만 8년이 걸렸고, 지붕에 사용할 특수 세라믹 개발에도 3년이 넘게 걸렸다. 건축가 우촌은 독특한 설계와 급진적인 접근은 물론, 뛰어난 협업으로 혁신적인 환경을 선보였다.

그러나 이곳은 어떤 건축물과도 비교하기 어려운 설계와 시공은 물론 기술 혁신을 보여줬다. 준공 이후 20세기 후반에 지어진 건축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이 건물은 세계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예술적 기념비라고 평가할 수 있다. 2003년에 뉴사우스웨일스 주가 주 문화유산에 등록한 데 이어, 2005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이곳을 국가 문화유산 목록에 포함했다.

SHWEDAGON PAGODA



황금빛 찬란한 불교 유산

미얀마 / 쉐다곤 파고다



● 미얀마는 2,500여 년의 불교 역사를 간직한 만큼, 전국에 크고 작은 400만여 기의 불탑이 있어 '불탑의 나라', '황금의 땅'으로도 알려진 곳이다. 2005년까지 미얀마의 수도였던 양곤에서는 쉐다곤 파고다가 세계 곳곳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을 반긴다. 이 탑은 미얀마의 종교적 열정과 화려한 건축기술을 말하듯 황금빛으로 존재 가치를 뽐낸다. 쉐다곤 파고다는 '금으로 된 다곤(양곤의 옛 이름)의 불탑 사원'이라는 뜻을 지녔다.

이곳이 지어진 때는 기원전 6세기경으로 추정된다. 부처님 생전 당시 인도 보드가야에서는 미얀마의 상인 두 명이 별꽃을 공양하고 부처님의 머리카락 8개를 받게 된다. 미얀마로 돌아온 두 상인은 당시 왕인 오갈라파에게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바쳤고, 왕은 이를 신전에 보물과 함께 고이 모셨다. 이렇게 시작된 쉐다곤 파고다의 역사는 1372년 빈나우 왕의 재건으로 다시 이어진다. 1455년부터 1462년까지 신소부 여왕은 테라스를 건설하고 금박을 입혔고, 그의 오빠인 빈냐기안이 20m 남

짓했던 탑을 90m까지 증축하였다. 이후 왕들도 많은 시설물을 기증하는 등 아끼지 않고 공을 들였다.

초기에는 지금처럼 금판이 붙지 않았으나, 고대 왕들의 애정과 국민적 관심이 모인 결과, 현재 금판 8,688개, 다이아몬드 5,448개를 비롯해 루비 2,317개, 사파이어, 토파즈 등 수많은 보석으로 뒤덮이게 됐다. 현재 탑의 둘레는 426m, 높이는 100m에 달한다. 기단부는 정사각형 형태이지만 기단 윗부분은 원뿔꼴이며 위로 올라갈수록 폭이 좁아진다. 경내에는 무게 23t의 거대한 종인 '마하 간다'가 자리 잡았고, 탑 기단 부분에는 작은 불탑 64개가 있다. 불탑 근처에는 '타자웅'이라 불리는 크고 작은 건물들 72개가 흩어져 있고, 그 안에는 수많은 불상이 안치된 상태다. 파고다 안쪽의 보도는 대리석과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는데, 방문객은 맨발로만 들어갈 수 있다.

유 권 해 석

01 유권해석

과도한 시설(장비)요건 및 특수한 설비요건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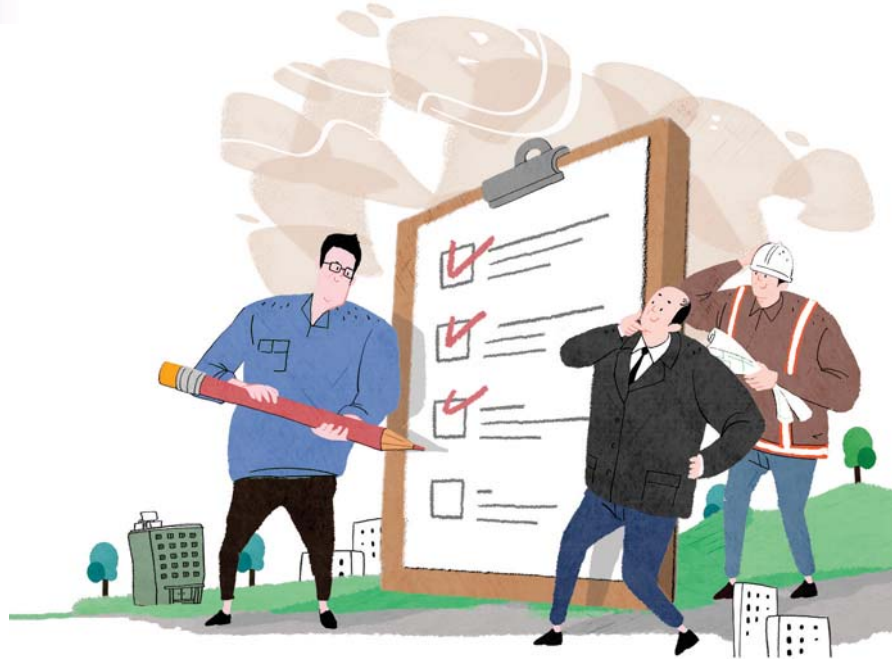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면표시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용해기를 적재한 차량으로 구조 변경한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건설업자로 제한할 수 있는지?

【답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질의와 관련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기계 또는 장비의 보유상황(소유 또는 임차)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없으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7-나-18)에 따르면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수한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사례(기계설비공사 자격이 있는 업체를 참여토록 하면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필요한 특수 설비요건을 갖춘 업체로 과다하게 제한)는 입찰 및 계약 시 계약담당자의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2205(2016.5.9.)



02 유권해석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의 부계약자 지역제한 관련

【질의】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체의 분담금액이 전문건설공사의 지역제한 공사금액(7억원)을 초과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지역제한으로 발주한다면 전문건설업체 분담공사도 지역제한으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에 따라 지역제한은 종합공사를 기준으로 발주하여야 하는 바,
- 종합공사를 지역제한으로 발주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체의 분담시공금액이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기준인 7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제한으로 발주해야 함.

【근거】 서면 질의회신, 회계공기업과-8109(2010.12.22.)

건설 판례

03 건설판례

대법원 2015.8.27. 선고 2013다81224 판결 [공사대금]

【판시사항】

- [1]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 발생 후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재판요지】

- [1]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2]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회원사 질의·응답

Q.01 포장공사 현장에 사용될 골재를 골재채취업자로부터 구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골재채취업자가 공사현장에 크러셔(원석 파쇄장비)를 설치하고 원석을 가져와 골재를 가공하여 납품할 경우 자재납품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건설공사 하도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골재는 포장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골재채취업자가 공사현장에 크러셔를 설치하여 원석을 가공하여 골재를 생산한 뒤 납품하는 것으로, 해당 사항을 건설공사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Q.02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주자로부터 벌점을 부과받았는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다른 제재사항이 있는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1호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음.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영 제9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를 한 자

-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Q.03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에 참가하여 투찰결과 1순위이나,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낙찰자로 결정이 되지 않았음.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재무비율, 신용평가, 종합평가 방법 중 업체에서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받을 수 있음.
- » 재무비율 평가의 경우 전국 업종별 평균비율 대비 업체의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과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100)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10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전국평균 유동비율 대비 100% 이상, 부채비율은 전국평균 부채비율 대비 100% 미만일 경우 만점으로 별도의 감점이 없음.



Q.04 현장배치기술자로 기능사를 배치 가능한지? 또 중복배치 가능 여부와 협회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 1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기능사는 현장배치기술자로 활용 가능하며, 5억원 미만의 공사는 기능사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 가능함.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관련 별표5 참조
- » 건설업자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될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중복 배치할 수 있음.
 - 1)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군과 제주도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및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2)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 » 기능사에 대한 경력증명서류는 협회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증명서는 없으며, 적격심사 등을 실시할 경우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급여지급서류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하여야 할 것임.



Q.05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적격심사 시 공사실적 인정기준은?

-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전문공사로서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시공경험 평가 시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 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토록 하고 있음.
- » 현재 협회에서 확정 공시(2015.7.1.)한 실적(2012~2014년 실적) 외에 2015년 실적 및 2016년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발주처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기성실적증명서로 인정)까지 인정가능하며, 4년 이상 실적으로 평가되므로 추정가격 대비 70%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별도의 감점이 없음.



Q.06 2016.2.12. 이후 건설업을 신규 등록한 자는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교육 미이수 시 별도의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 » 2016.2.12. 이후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자는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업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6개월 이내에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음.
-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일정 등은 홈페이지(<http://edu.kosca.or.kr>)와 전화 문의(☎ 02-3284-1080)로 확인 가능함.
 ※ 2016.2.12. 이후 영업정지 처분 중에 있는 업체가 영업정지기간 내에 건설업 교육을 이수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15일 감경받을 수 있음.

Q.07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협회에서 발급하는 제재처분 확인서에 해당 내용이 표기되는지 여부?

- » 협회에서 발급되는 제재처분확인서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영업정지, 건설업 등록말소만 표기되어 증명서가 발급됨.



하도급 분쟁 해법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설계변경으로 도급액 넘는 하도급금액 반환의무 없어

발주자로부터 여객터미널 신축 공사 중 외벽 및 지붕마감 공사를 도급받은 원사업자는 그중 강구조물 설치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39억원에 하도급 주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공사 진행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설계를 기준으로 작업을 지시하는 등의 사정으로 수급사업자는 재시공해야 하거나 수정작업을 해야 하는 사정이 수시로 발생했다.

수급사업자는 수시로 발생하는 수정작업의 수요를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추가공사대금으로 24억원을 요청했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청구 중 13억원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회신했으나,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 최종적으로 수정작업의 추가공사대금은 16억원으로 합의됐다.

그런데 하도급공사는 수정작업 이외에도 당초 설계보다 물량이 현저히 초과하는 사정이 발생했으나 원사업자는 발주자와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해 결국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수정작업비 명목으로 15억 원만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16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하도급법의 설계변경에 대한 규정 등에 비추어 수급사업자는 1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급사업자는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하도급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하도급법에서는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증액받는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사업자는 이 규정을 수급사업자가 설계변경을 이유로 증액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도급대금의 범위 내라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증액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원사업자가 증액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최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최대'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도급금액을 초과해 하도급금액을 정하고 이를 지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하도대 직불 합의와 압류채권자의 선후】

압류통지 전 시공 부분 직불은 압류채권자에 우선 효력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음악분수공사를 도급 주었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음악분수의 조경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라는 동의서를 작성했다. 그 후 조경공사를 시공하던 중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도급채권을 압류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압류하기 전에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하도급대금은 자신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압류채권자는 하도급대금은 압류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수급사업자는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해 대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수령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과 그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즉 이 사건의 합의서가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을 양 당사자가 의도해 작성한 것이라면 해당 합의서는 하도급법의 범위 안에서만 유효할 수 있다.

하도급법의 규정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직접지급의 합의를 했더라도 수급사업자는 자신이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만을 직접지급의 합의에 따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신의 시공 여부와 상관없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압류명령의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조경공사를 실제로 완료했는지에 따라 혹은 수급사업자가 시공 중이었다면 그 기성고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압류채권자에게 우선 지급을 주장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진다.

위의 예에서 압류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조경공사를 일부 수행한 사실이 있다면 수행한 부분만큼은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해 해당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압류 통지 전에 시공 부분이 없었다면 수급사업자는 압류채권자에 우선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의 합의는 압류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시공한 부분은 압류채권자보다 우선적 효력이 있으므로 수급사업자는 압류를 이유로 미리 실망하기보다는 압류 전에 자신이 수행한 기성고의 자료를 면밀히 준비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이우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팀장



부산 전문건설인 가족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 협력 기업

당사는 기존의 코끼리표 태양상이라는 자매회사를 운영해 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3년 3월 설립하여 국산제품의 지속적인 개발 및 생산, 판매를 위해 설립된 벤처기업입니다.

태양산업



“업계 최고의 리더가 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고객을 위한 품질 개선과 개발로 고객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겠습니다. 늘 생각하고 깨어 있는 기업으로 고객님의 만족을 기업 최대의 목표로 삼고 일하는 아름다운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코끼리표 태양산업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커 갈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태양산업 CEO 정경상



멀티컬러공기장화

-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 획득 제품
- 기존 공기장화의 단조로운 컬러를 탈피한 최초의 멀티 컬러 제품
- 두 가지 이상의 원료를 사용하여 생선해 몸통과 바닥의 경도가 달라 낮은 마모율과 뛰어난 착화감을 자랑
- 중량 : 500g 미만



엘크루패션안전장화

- 산업안전에 적합한 가시성이 높은 다양한 색상 제조
- 특허(제 10-1313897호)를 획득한 제조방법으로 탁월한 방수기능
- KTR로부터 항균마크 획득(항균력 99.99% 인증)
-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 획득(2014-CR-0181GH)
- 신고 벗기 편하게 고안된 디자인



명품항균장화

- KTR로부터 항균 마크를 획득한 제품으로 일본특허 항균원료를 배합해 99.99%의 항균력을 자랑.
- 일체성형(Injection)으로 접착면이 없어 바닥이 분리되지 않고 완벽 방수 가능
- 바닥창은 특수원료를 배합하여 미끄럼 방지 기능이 탁월한 논슬립 제품
- 세균번식 억제, 발냄새 제거

회사명	태양산업
설립일자	2013년 3월 1일
소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35-72
주요사업	PVC장화, 항균장화, 멀티컬러 공기장화 제조
전화번호	051) 714-7031
팩스번호	051) 714-7033
전자우편	in3468@naver.com
홈페이지	www.taeyangsanup.co.kr



부산 전문건설인 가족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 협력 기업

무료
배송



SPORTS DIRECT.CO-KR

유럽 최대 스포츠 멀티샵
스포츠다이렉트



dohm 다음에서 스포츠다이렉트를 검색해보세요. ▾



이제 영국이 아닌 한국에서도 브리티쉬 스타일을 체험하세요!
영국 소재 유럽 최대 스포츠 멀티샵을 운영 중인 스포츠다이렉트는 다양한 영국 브랜드를 선별하여 타 브랜드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영국 스타일의 한국적 해석**을 통해 식상함에 지친 고객 여러분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럽 스타일의 신상품을 선보일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9,800원 이상 무료배송

www.sportsdirect.co.kr

국내 최저가 추천 아이템!

Firetrap
파이어트랩 스펀서 (4 COLORS)

소비자기격 470,000원 **71%** 49,800원



소가
족



▲ 브라운 ▲ 블랙 ▲ 블랙플레인

BEST

HOTUNA
핫튜나 도버 (5 COLORS)

소비자기격 52,000원 **75%** 12,800원

151g
(UK2/한발당)

SPANDEX



삼중구조의 UPPER
1단계: 메쉬 / 2단계: EVA
3단계: 나일론



NEW

▲ 네이비/라임



▲ 블랙/라임 ▲ 핑크/핑크 (여성용) ▲ 그레이/라임 ▲ 블랙/블랙

HOTUNA
핫튜나 스플래셔 (6 COLORS)

소비자기격 28,000원 **69%** 8,800원

153g
(UK4/한발당)



▲ 핑크/차콜(여성)



▲ 블랙/그린



▲ 블랙/블랙 ▲ 블랙/오렌지 ▲ 블랙/터라이즈(남성) ▲ 블랙/핑크(여성)

NEW

Firetrap
파이어트랩 코르크 슬리퍼 (6STYLES)

소비자기격 68,000원 **87%** 8,800원

안솔
가죽



▲ 브리스톨 (6COLORS)



▲ 켄트 블랙 & 화이트



▲ 아이먼(여성용/6COLORS) ▲ 켄트 SD (4COLORS) ▲ 엘리 (3COLORS) ▲ 엑스터(4COL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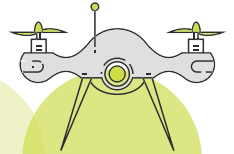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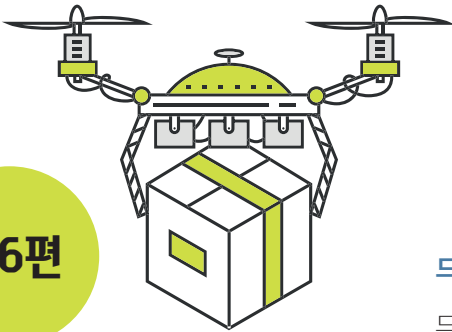
BEST

1년, 2년, 3년 후의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지식, 정보, 창조의 시대에서는 예측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 무엇이 기초이고 무엇이 표준일까? 끊임없이 변화되는 사회에 변화 속으로 함께 산책해 본다면 그 재미도 쏠쏠할 것이다. 이게 공상이라도 좋다. 인류의 발전과 함께 공상이 현실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산업을 바꿀 혁신기술

제6편

스마트드론



드론의 활용 및 운용 범위

드론은 애초 군사용으로 탄생했지만 이제는 고공영상·사진 촬영, 배달, 기상정보 수집, 농약 살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운용 목적에 따라 취미용, 민수용, 군사용으로 구분되며 기체 유형에 따라서는 고정익, 회전익, 동축, 삼축 및 다축 로터로 분류된다. 초기에 전투기나 미사일의 사격연습의 표적으로 개발되었으나 관련 기술의 발달로 정찰감시를 포함한 폭격 용도로 개발·운영되고 있다. 군사용으로는 인명피해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민수용은 오지, 산불지역, 화산지역, 자연재해 및 원자력 발전소 사고지역에 대한 감시나 영화 촬영, 건축현장 항공촬영 등 여러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활용 유형]

분야	기관·업체	주요 내용
공공	경찰청	고속도로 교통위반차량 단속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사고 현장 투입 및 조사
	산림청/환경부	국유림이나 국립공원 조사·연구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중국 불법조업 감시/조난구조
	평택해양경찰서	경기 남부 해안 감시
방송	해운대구청	해운대해수욕장 이안류 발생 여부 감시
	연합뉴스	취재보도 촬영
	방송사/영화사	연예프로그램 촬영/영화 촬영

드론이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를 뜻한다. 카메라·센서·통신시스템 등이 탑재되어 있고 25g부터 1,200kg까지 무게와 크기도 다양하다. 드론이라는 이름은 벌이 날아다니며 웅웅대는 소리에서 착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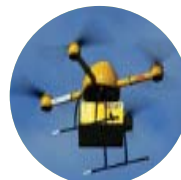
촬영, 취미



정밀농업



인프라 관리



택배



화물수송

[운용 범위]

물류 드론 ▶ 혁신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분야와 민간 분야에서 가장 활약한 분야는 물류이며 이미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2014년 드론을 통한 택배로 혁신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아마존은 드론택배 서비스인 '프라임에어'를 담당할 드론 조종사를 모집 중이다. 또한 경쟁사인 DHL은 2014년 9월 드론에 소포를 실어 육지에서 섬으로 배송하는 것을 성공하였으며, 중국의 알리바바는 베이징·상하이 등 중국 대도시에 사흘간 드론을 이용한 시범택배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드론 배달 유틸리티 시대를 예고했다. 드론 배송이 늘어남에 따라 단순한 배송 확대가 아닌 기존 물류시장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 드론 ▶ 드론을 통해 인터넷망을 확보하면 구리선이나 광케이블 등 기존 데이터 전송망보다 적은 비용으로 망을 유지할 수 있다. 확보한 주파수 대역을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파는 등, 막대한 경제효과를 지닌 독점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도 있다. MS의 윈도우와 스마트폰의 IOS·안드로이드가 초기 시장을 선도하며 크게 성장했듯 성장하는 플랫폼인 드론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IT기업들의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용 드론 ▶ 현재 가장 활발하게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 산업 분야는 영상촬영사업으로 이미 많은 드라마, 영화, 쇼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드론의 손쉬운 접근성을 무기로 취재 영역과 방식의 혁명을 이끌고 있다.

농업용 드론 ▶ 원격농장 관리와 정밀농업 확대 등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과 영농가능 규모 확대 등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대체할 수 있다.



보험 관련 드론 ▶ 재해 발생 시 피해규모 조사 및 손해액 산정, 위험관리 등에 활용하는 등 손해사정사의 업무 효율성과 안정성을 증대한다. 또한, 손해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보하여 피해 규모와 보상액을 신속·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다.

재해관측 및 시설안전 드론 ▶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대량의 방사능이 누출됐을 당시 미국의 군사용 무인 항공기 '글로벌호크'가 원전시설에 접근하여 적외선 카메라로 발전소 내부를 들여다보고 각 시설의 온도를 포함한 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일본은 방사능 수습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밖에도 인명구조, 화재진압, 건물이나 교량의 균열 파악, 테러현장 조사, 교통사고 감식, 지도 제작, 풍력발전기 날개 검사, 밀렵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다.

분석 서비스 드론 ▶ 3D 소프트웨어 시장 또한 드론과의 결합으로 더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 드론으로 공중에서 지상을 촬영하고, 촬영된 사진을 3D 맵핑 소프트웨어에서 3차원으로 변환함으로써, 촬영내용의 조사를 2D가 아닌 3D로 역학적으로 검사하여 빠르고 정확한 원인 감식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건설·토목·농업 분야와도 결합하여 데이터 분석이 용이해진다. 특수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하면 조난자 위치 파악이나 노후된 태양열 집진판을 발견·교체가 가능하고, 이밖에 각종 댐 및 교량의 균열을 검사할 수도 있다.



[출처]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스마트드론 산업동향 및 전망보고서」

신규 회원가입 업체 현황

[2016. 4. 1.~ 6. 30.]

상 호(대표자)	주 소	상 호(대표자)	주 소
 (주)건영하우징 김해준	부산 동래구 명안로17번길 32, 2층(안락동) T : 051-919-4974 보유업종 : 실내건축	 경민건설산업(주) 김규철	부산 사상구 새벽로18번길 13, 2층(학장동,영이식당) T : 051-315-0111 보유업종 : 토 공 비계 · 구조물해체
 (주)경진씨엔씨 고영원	부산 해운대구 APEC로 17, 1401호(우동, 센텀리더스마크) T : 051-714-5795 보유업종 : 토 공 상 · 하수도설비	 광림이엔씨(주) 이성관	부산 수영구 광일로29번가길 19, 4층 (광안동) T : 051-754-7779 보유업종 : 토 공
 금신개발(주) 김동욱	부산 중구 중앙대로 24, 501호(중앙동6가, 주경빌딩) T : 051-463-5411 보유업종 : 준 설	 (주)동신창호 최순자	부산 동구 흥곡로 15 (초량동) T : 051-465-4914 보유업종 : 금속구조물 · 창호
 (주)명가건설 주건중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123번길 36, (재송동, 2층) T : 051-783-2221 보유업종 : 금속구조물 · 창호	 (주)서현건설 하경호	부산 사하구 괴정로 129 (당리동) T : 051-293-7869 보유업종 : 금속구조물 · 창호
 에스에스씨산업(주) 박용수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9층 908호(양정동, 시청센터빌) T : 051-867-1358 보유업종 : 보링 · 그라우팅	 (주)우솔 고봉석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99, 307호(구서동, 유림노르웨이아침) T : 051-512-5601 보유업종 : 금속구조물 · 창호
 에스에스씨산업(주) 최은영		 (주)우솔 송진석	
 (주)엠지엔건설 (MGM Construction Co., Ltd.) 정응암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253번길 22, 2층(수안동) T : 051-555-0933 보유업종 : 철근 · 콘크리트	 (주)예림건축의정 이상우	부산 북구 기찰로 67 (덕천동) T : 051-334-3415 보유업종 : 실내건축

상 호(대표자)	주 소	상 호(대표자)	주 소
 (주)와이디건설 임영대	부산 연제구 해맞이로 23, 116-305(거제동, 거제유림아시아드) T : 051-507-7357 보유업종 : 상·하수도설비	 와이지케이디자인 윤진희	부산 수영구 수영로 421-1, 309호(남천동, 로얄오피스텔) T : 051-621-0071 보유업종 : 실내건축
 (주)은중산업 김중현	부산 부산진구 개금은정로 5, 438호(개금동, 성원상떼뷰) T : 051-897-9770 보유업종 : 금속구조물·창호	 한림정공(주) 강정민	부산 중구 해관로 38, 602호(중앙동2가, 항도빌딩) T : 051-241-6010 보유업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

부산 전출·입 전문건설업체 현황

(2016. 4. 1. ~ 6. 30.)

전출업체 현황	전입업체 현황
(주)대경디앤아이 (대표 : 정경래, 경기)	(주)관수산업개발 (대표 : 이정휘, 충남)
모당건설(주) (대표 : 서정일, 경남)	(주)그루빅건설 (대표 : 김정규, 경남)
서호건설(주) (대표 : 손이순, 경남)	(주)그린텍 (대표 : 송인숙, 울산)
에스에프피(주) (대표 : 김형률, 경남)	금산개발(주) (대표 : 박지훈, 울산)
진영종합건설(주) (대표 : 조덕래, 경남)	(주)나움디자인건설 (대표 : 박창구, 충남)
(주)허브동산 (대표 : 장기웅, 울산)	(주)다인산업개발 (대표 : 박미란, 경기)
	덕산산업개발(주) (대표 : 최학영, 경남)
	(주)돈광건설 (대표 : 박희돈, 경남)
	디노스틸(주) (대표 : 정호준, 충북)
	(주)보람엔지니어링 (대표 : 이영복, 경남)
	서호건설(주) (대표 : 손이순, 경남)
	온새미로건설(주) (대표 : 김명순, 경북)
	(주)유경토건 (대표 : 김유리, 이경욱, 울산)
	(주)제일이지오건설 (대표 : 서근옥, 경기)
	태운지질(주) (대표 : 권용근, 대구)
	(주)프라임이앤씨 (대표 : 김은태, 경기)

부산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2016. 6. 30. 기준)

지 역	업체수	등록수	지 역	업체수	등록수	지 역	업체수	등록수
중구	26	61	남구	92	132	북구	78	104
동구	57	113	금정구	201	303	사상구	111	143
서구	29	35	연제구	136	209	강서구	146	202
사하구	71	91	해운대구	193	273	기장군	184	278
영도구	22	33	수영구	106	151	합계	1,795	2,613
동래구	170	222	부산진구	173	263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진단 및 대책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주요 재해 사례를 소개하고 회원사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사례별 안전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TTP 이동작업 중 TTP와 TTP 사이에 협착 사망

공사명	○○국가산업단지 ○○○○지구 조성공사(○공구)	발생일시	2013.12.09.(월) 10시 10분경
재해형태	협착	재해정도	사망 1명
소재지	울산 울주군 온산읍	공사규모	7,100백만원
재해개요	2013.12.09.(월) 10시 10분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건설(주) ○○국가산업단지 ○○○○지구 조성공사(○공구)에서 근로자 이○○(남, 45세, TTP공)이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테트라포드(TTP) 전치 작업 중 TTP와 TTP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지휘자 업무 철저

- 작업지휘자로 지정된 근로자는 작업자의 위치, 신호수의 위치, 크레인 작업반경 내 타 근로자 접근 유무 등 재해발생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함

코핑 거푸집 해체작업 중 거푸집이 탈락되면서 비계공 추락

공사명	(주)○○종합건설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공구)	발생일시	2013.12.29.(일) 14시 55분경
재해형태	추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재지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공사규모	총연장 2,797m, 교량 9개소, 터널 3개소
재해개요	2013.12.29.(일) 14시 55분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주)○○종합건설이 시공하는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공구) 현장에서 재해자 김○○(남, 58세, 비계공)가 교각 2번 코핑 거푸집 해체작업 중 전면 우측품 고정볼트 해체 작업을 완료하고 코핑 최상단 작업발판 좌측으로 이동하였을 때 코핑 거푸집 좌측 부분(약 5.5ton)과 PIER BAND(코핑 거푸집을 하부에서 지지하는 강재) 고정부위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우측 부분과 분리되면서 재해자가 좌측 코핑 거푸집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H≒23m)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 상황도



안전대책

- 교량의 코핑 거푸집 해체 작업 시 작업방법 및 순서, 부재의 낙하 방지, 근로자의 추락 위험 방지 등을 위한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작업계획 변경 시 변경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함
- 코핑 거푸집과 같이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해체작업 시 거푸집 부재의 연결 및 지지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코핑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하여야 함

건설업자의 책무

건설공사 대장 전자로 통보하세요!



원도급 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
 하도급 공사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
 건설업체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전자로 통보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법 제22조 제4항, 시행령 제26조)

- ①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및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 ②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계약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도 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함
- ③ 위반 시 제재사항
 - 시정명령(법 제81조 제3호)
 - 시정명령 불이행 시 : 과태료(법 제99조 제2호)
 - 1차 : 100만원, 2차 : 200만원, 3차 : 400만원

※ 단,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포함)의 기재사항 통보를 공사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 즉시 과태료 처분
 ※ 물품·납품 등을 현장설치조건으로 계약하고 시공(현장설치) 후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공사대장 통보하여야 함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 5월 25일 중앙회 신홍균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국토교통부 김정희 건설경제과장, 센터 강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가 개원식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오픈했다. 건설교육센터는 건설인의 윤리 및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전문건설협회 외 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등 총 6곳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

▷ 중앙회 신홍균 회장 및 회장단은 6월 21일 한국건설관리학회(회장 전재열)와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건설산업에 관한 연구개발과 정보교류를 활성화하여 업계발전에 함께 노력하며, 건설산업 선진화 사업에 대한 조사·연구·정책개발과 현안 과제 발굴 조사 및 대응 등 추진하고,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례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기로 했다.

▷ 중앙회 신홍균 회장은 6월 21일, 23일 이틀간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상임위원장, 박덕흠 의원 등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상견례를 가지고 “전문건설인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정식 위원장도 “업계 현안 해결 위해 협회 노력하며 건설업 발전을 위한 건의나 제안을 많이 해달라”고 화답했다.



부산시회 2016년 3/4분기 주요일정 안내

※ 협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 자	주요 일정
2016. 7.26(화)	2016회계연도 신규회원 간담회
2016. 7. 29(금)	2016년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 8/1(월)~ 건설업 등록수첩 기재
2016. 9월 중	2016년 제2차 전문건설인 경영(조찬)세미나



코스카레터를 읽고..

코스카레터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다뤘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독자의견은 메일(kosca21@kosca.or.kr)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독자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 (문화상품권 등)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람포장건설(주)
배동주 이사

코스카레터는 한 권의 월간종합잡지와 마찬가지로 건설정보에서부터 다양한 생활정보 및 부산의 명소, 세계의 아름다운 건축물 등 알차고 건강한 내용이 폭넓게 잘 다루어져 있어 정말 잘 읽었습니다. 차후엔 한 국의 건축, 토목현장의 미 또는 부산의 자랑할 만한 건축, 토목현장을 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애니건설(주)
정학균 대표이사

책장에 한 권씩 한 권씩 늘어가는 코스카레터와 더불어 건설산업정보에 관한 지식이 축적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개정된 건설법령제도가 잘 정리되어 있어 유익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자를 위한 알찬 정보들이 가득한 소식지로 더 발전하길 바라며, 다음 호를 기대해 봅니다.



독자퀴즈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자 발표

- (주)제일공사 차장 김진우
- 건진개발(주) 상무 이상엽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

- 50일

코스카레터 잘 읽으셨나요? Quiz를 풀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Q 아래의 빈칸에 알맞은 답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하였으며, 2016.2.12. 이후 건설업 신규 등록 시 []개월 이내에 “건설업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토록 하고 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 중에 있는 건설업자가 건설업 교육 이수 시 최대 []일 이내의 기간을 감면받을 수 있다.

- ① 1개월, 10일 ② 2개월, 15일 ③ 3개월, 50일 ④ 6개월, 15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협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팝업창을 통해 응모 (기간 : 2016. 8. 31.(수)까지)하시면 추첨하여(정답자에 한함)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www.ftc.go.kr



“하도급 ·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익명으로도 제보하세요!

익명제보

▶ 중소기업이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하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 익명제보센터에 제보하세요.**

• www.ftc.go.kr → 민원참여 → 하도급 · 유통 익명제보센터 에 제보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인적사항, IP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아 제보자의 신원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울러, 조사단계에서도 제보자의 신원이 추정되지 않도록 조사시기, 조사범위를 신속적으로 조정합니다.

※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익명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제보에 대한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익명제보센터에 제보된 내용중 △하도급법 또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실명으로 신고하거나 처리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피제보자에게 이미 제보자의 신원이 알려진 경우, △타부처 소관 법률과 관련된 사항 등의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가 곤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제보센터 문의 : 044-200-4593

실명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 하도급 · 유통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통지받고 싶을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세요.**

• 온라인 신고 : www.ftc.go.kr → 민원참여 → 불공정거래 신고

• 서면 신고 : 원사업자의 소재지가 있는 지방사무소

연락기관	담당지역 및 업무	연락처
종합상담실	하도급법 질의 및 진화상담	044-200-4010
서울사무소 제2하도급과 · 건설하도급과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	02-2110-6161~7 02-2110-6144~9
부산사무소 하도급과	부산, 울산, 경남지역	051-460-1041~5
광주사무소 하도급과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062-975-6841~4
대전사무소 하도급과	대전, 충남북, 세종지역	042-481-8018~20
대구사무소 하도급과	대구, 경북지역	053-230-6341~4

▶ 하도급 · 유통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분쟁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건설협회,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회 등에 설치된 분쟁조정협회에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1588-1490, www.kofair.or.kr)
- 중소기업중앙회 분쟁조정협의회(02-2124-3132, www.kbiz.or.kr)
- 건설협회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02-549-2105~6)
- 전문건설협회 공정거래정책부(02-3284-1088)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30번길 30(전문건설회관 4층)

Tel. 051-633-0260 Fax. 051-633-0261

www.kosca21.or.kr